

2026-07-06



가격발견의 확장: 무기한 선물

주식시황. 조준기

Summary

- 금융시장에서 정책발 변동성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굵직한 이벤트가 주중 야간이나 주말에 집중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가 닫혀 있는 동안 개장 가격을 가늠하는 일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료 이후 국내 증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존 도구는 야간 선물과 해외 증시에 상장된 국내 증시 관련 ETF 정도인데, 이들은 가격 발견에 분명히 높은 기여를 하지만 개별주 부재, 주말 중 공백(금요일 마감~월요일 개장 65.5시간)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 이 공백을 보완할 수단으로 ADR(개별주·평일)과 무기한 선물(연중무휴 24시간 거래)을 제시합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ADR은 그동안 일부 존재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는데, SK하이닉스 ADR 상장(7월 10일 예정)을 계기로 미국 시간대의 개별주 가격발견 채널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하이퍼리퀴드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미국 내외 주식, ETF, 주가지수, 원자재 등 폭넓은 자산군을 다루며, 최근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종목 일부까지 커버리지를 넓혔습니다. 실제로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는 이들 종목에서는 정규장 폐장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의 무기한 선물 가격 변동이 KRX 시초가 변동의 90% 이상을 설명하는 등 강한 가격 발견 효과가 확인됩니다.
- 신뢰도 위계에 따라 KRX 정규장 마감 이후에는 야간 선물을, 미국 정규장 시간대에는 야간 선물·ADR을, 그 외 시간대에는 무기한 선물을 우선 참고하면 시간대 전반에 걸쳐 가격 발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기한 선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정보 소스로 삼아 1) 시초가 갭 예측, 2) 펀딩레이트 추적을 통한 심리 시그널 도출, 3) 주말·공휴일 등 전통 금융시장 폐장 시간대의 가격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 23시간·주 5일 거래 체계를 도입하면(올해 말~내년 초 예상) 주중 무기한 선물의 효용은 줄어들겠지만, 주말·공휴일과 한국 개별종목의 공백은 여전히 남는 만큼 정규장에 더해 ADR·야간 선물·무기한 선물을 함께 모니터링함으로써 가격 발견의 확장 효과와 확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동성·조작·규제·괴리의 4대 리스크와 종목별 미결제약정(OI)에 따른 신뢰도 차등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Contents

	Summary	2
Part 0	왜 시간외 가격발견인가	4
Part 1	기존 가격발견 도구: 야간선물과 ADR	9
Part 2	새로운 가격발견 도구: 무기한 선물	19
Part 3	실전 활용 방안	25
Part 4	Appendix	47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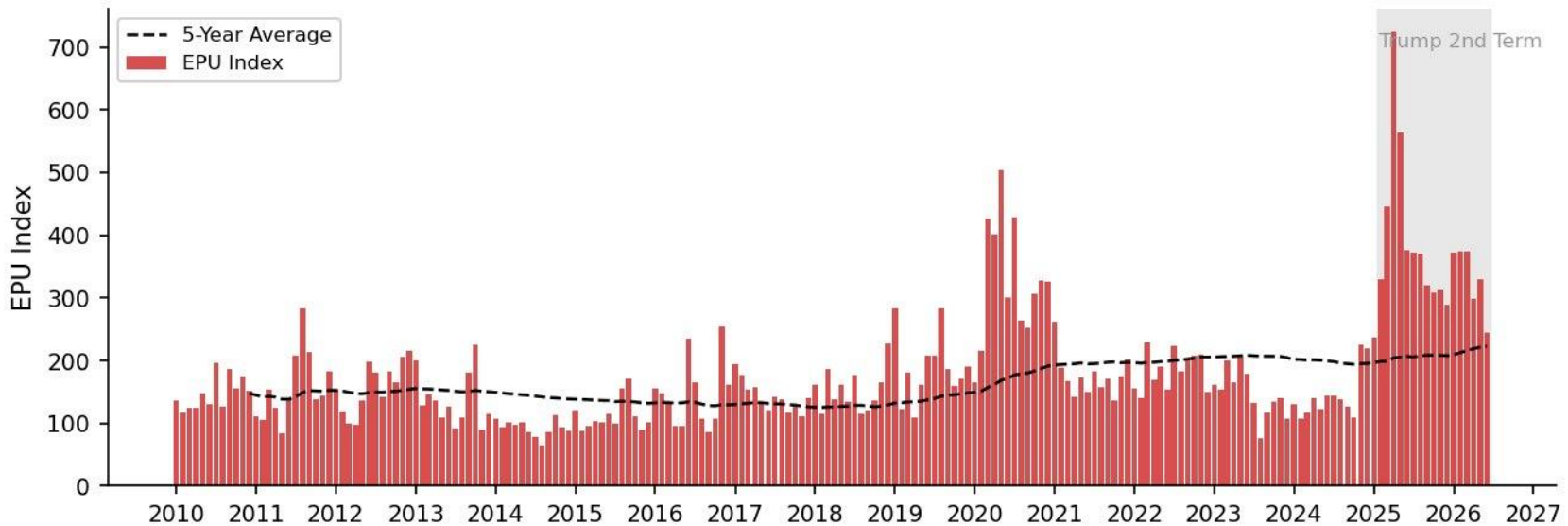
Part 0.

왜 시간외 가격발견인가

높아진 정책발 변동성

-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가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2025년 관세 정책 발표 국면에서 700pt를 상회하며 팬데믹 당시(2020년) 고점을 경신함
- 고점 통과 이후에도 EPU는 5년 평균선을 큰 폭 상회하는 레벨에서 등락 반복 중인데, 정책발 변동성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수로 자리매김함. 정책 헤드라인이 매크로 지표보다 시장 변동성을 좌우하는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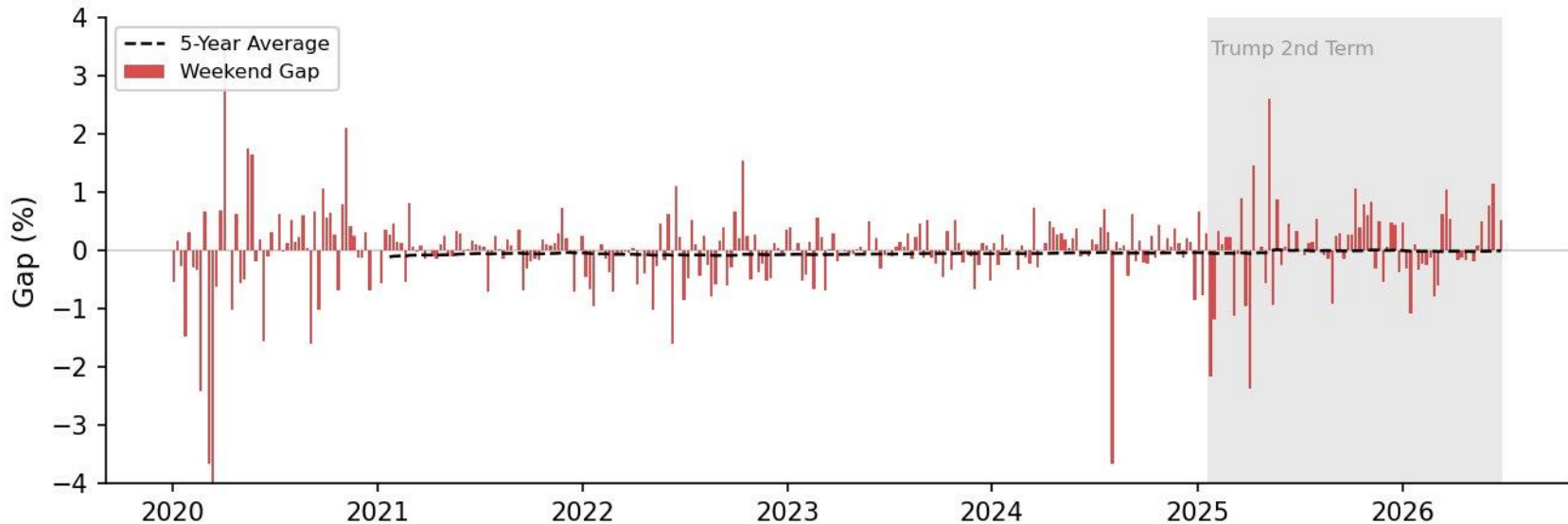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주말 중에 유독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

- 정책발 변동성이 상승한 것에 더해, 관세 발표 · 지정학 이슈 등 주요 이벤트가 장이 닫힌 주말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 중
- 실제로 S&P 500의 금요일 증가-월요일 시초가 갭은 트럼프 2기 들어 뚜렷하게 확대됨. $\pm 2\%$ 를 넘나드는 갭 발생 빈도가 5년 평균 대비 크게 증가함
- 주말 동안 대응이 불가능한 '공백시간'의 리스크가 커진 국면. 월요일 갭 오픈에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주말 이벤트를 감안한 포지션 관리가 필요하며 "가격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를 미리 가늠하는 것의 중요도 또한 당연하게도 상승

미국 S&P 500 지수 금요일 증가-월요일 시초가 갭 추이



KRX 커버리지 공백

- 주식시장이 닫혀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며, 넥스트레이드가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공백을 줄여줄 뿐 없애 주지는 못함
- 정규장 기준으로 주중 공백 시간은 17.5시간, 주말은 65.5시간에 달함.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주중 12시간, 주말 60시간의 공백이 발생
- 가격발견 공백이 클수록 갭 리스크는 올라가기에, 야간선물, ADR, 무기한선물 등의 시간 외 거래 도구들을 이용해 공백을 최소화할수록 확률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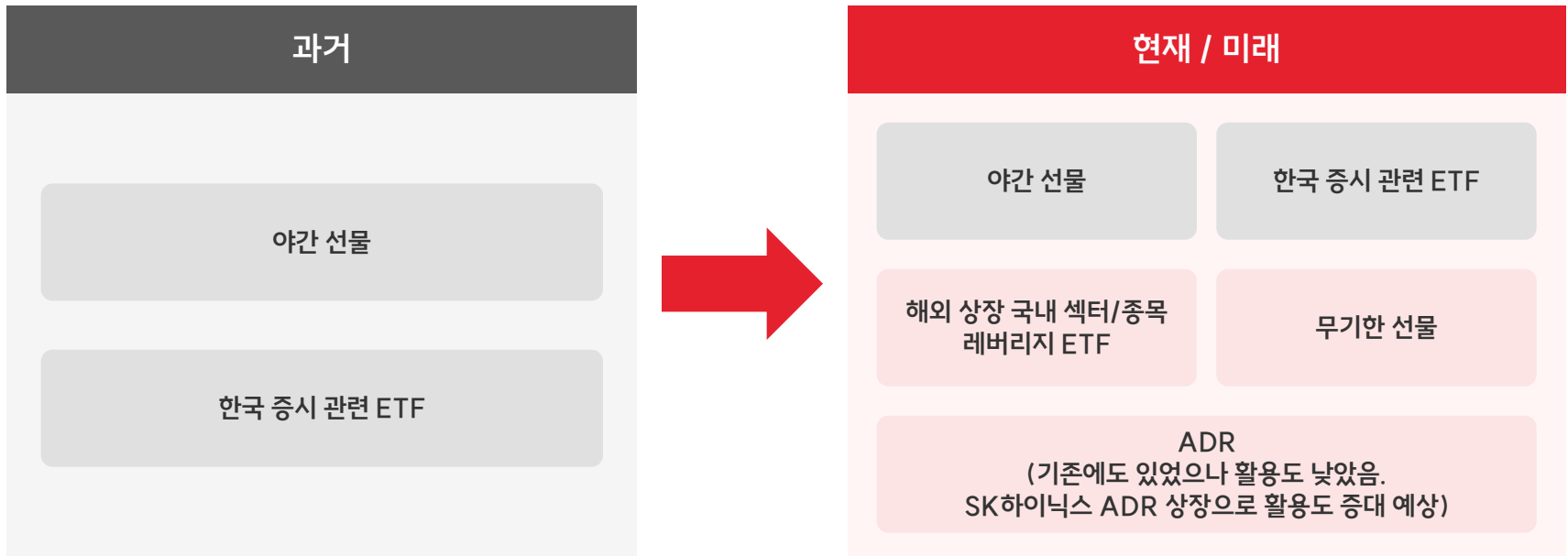
넥스트레이드/한국거래소 정규 거래시간 기준 거래 공백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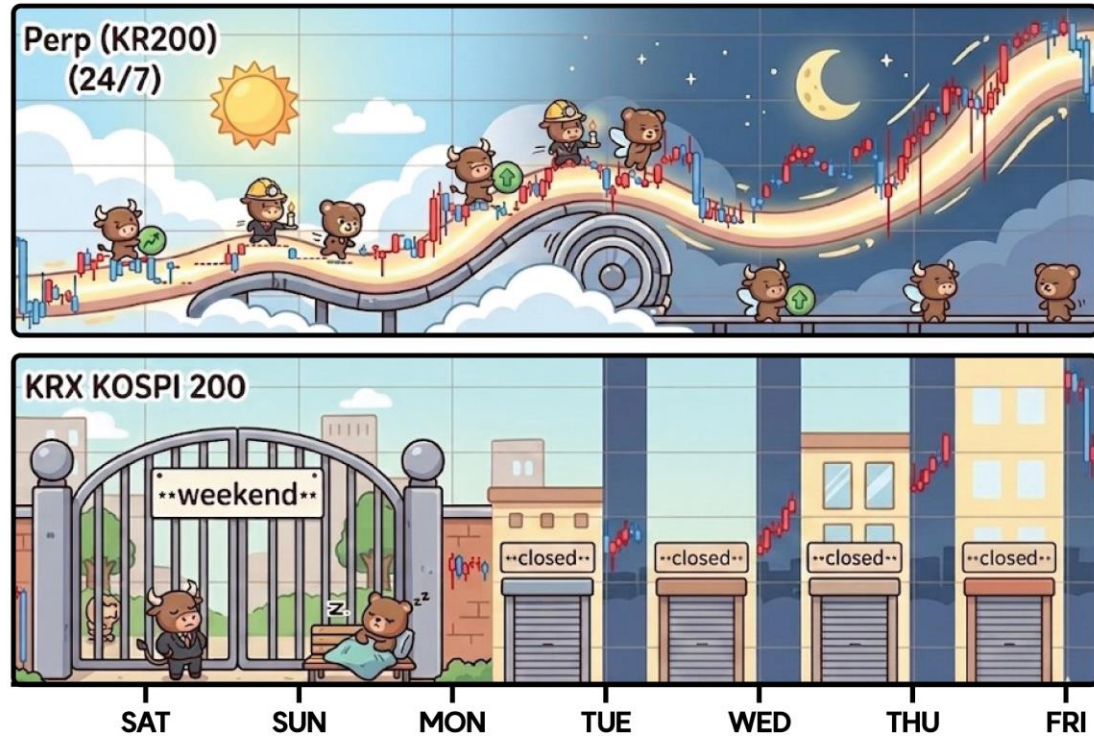


가격 발견 도구의 변화

- 국내 증시 폐장 후 다음 거래일을 가늠하는 데에 쓰였던 도구는 주로 1) 야간 선물과 2) EWY(iShares MSCI South Korea ETF)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증시 관련 ETF 정도였음. 국내 종목들도 일부 미국 증시에 ADR 상장되어 있긴 했으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시장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해 왔음
- 최근 미국 증시에서 메모리 기업들 중심의 바스켓으로 구성된 DRAM ETF를 출시했고,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무기한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증시에 ADR 상장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증시가 닫혀 있는 동안에도 가격 레벨을 가늠할 수 있는 도구들이 확장되는 추세
- 해당 도구들을 이용해 국내 증시 시초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국내 증시 종료 이후 가격 예측 기능 도구의 다변화





Part 1.

기존 가격발견 도구: 야간선물과 ADR

야간 선물: 기본 구조

- 야간 선물은 KRX가 공인한 시간외 파생상품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야간 포지션 헤지 시 가장 먼저 활용하는 1순위 수단
- 거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총 12시간으로, 미국 증시 거래 시간대를 아우르며 해외 변수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음
- 거래 대상은 코스피200 등 주가지수 관련 7개 상품과 달러·국채 관련 3개 상품을 합쳐 총 10개로 구성
- 코스닥150 선물도 야간 거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유동성이 극히 낮아 기관의 헤지 수단으로서는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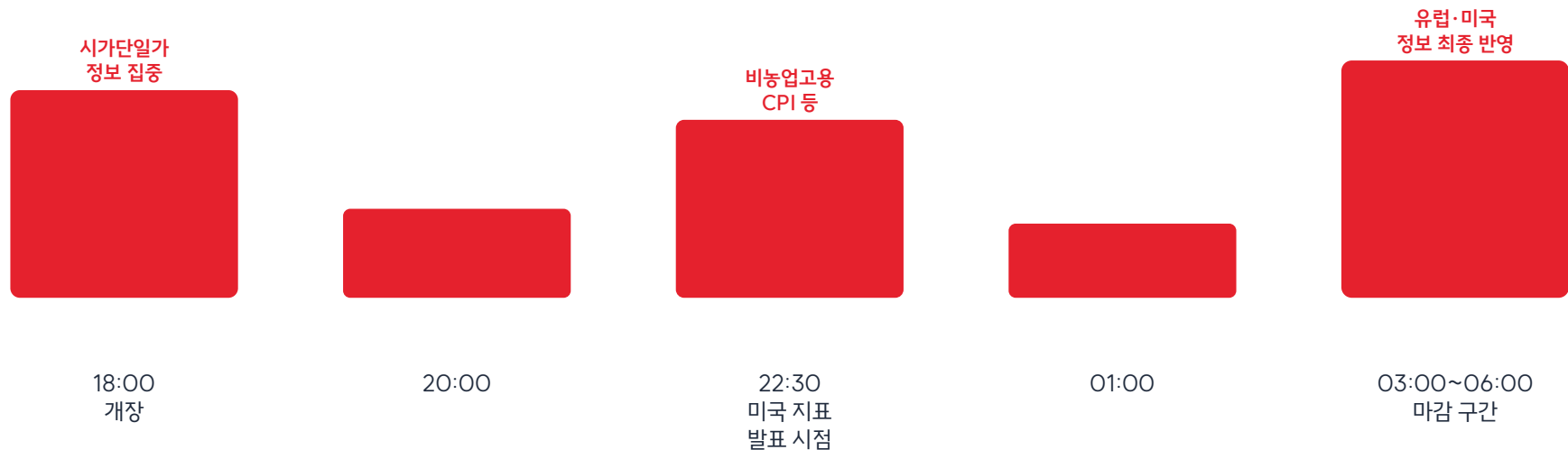
야간 선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대상

구분	종목	야간거래 개시
주가지수	코스피200 선물	2009.11
	미니코스피200 선물	2009.11
	코스피200 옵션	2009.11
	미니코스피200 옵션	2009.11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2025.06
	코스닥150 선물	2025.06
	코스닥150 옵션	2025.06
FICC	미국달러 선물	2025.06
	3년국채 선물	2025.06
	10년국채 선물	2025.06

야간 선물은 도움이 된다

- 이미 학계에서는 야간 선물이 시장 가격 발견 및 안정성에 큰 도움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존재
- 1) 야간시장 수익률은 익일 주간시장 시가에 대부분 즉각 반영되며, 장 개시 이후 지연 이전 효과는 낮음. 주간시장 거래자들은 야간선물 가격을 동일 시간대 미국 주식시장 변동보다 중요한 정보로 인식해 야간시장이 주간시장 가격발견에서 해외주식시장을 능가하는 주도적 역할 수행
- 2) 야간선물 수익률이 해외지수보다 익일 KOSPI200 시가수익률 예측에서 우위를 보이며 야간선물의 가격변동성도 해외지수 대비 익일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 예측에 약간의 우위가 있었으며, 야간선물 도입이 한국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임
- 3) 야간거래 도입 전후 데이터를 이용해 호가스프레드울·유흐스프레드울을 구간별로 측정한 결과, 정규시장의 전체 시장마찰이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역선택 요소 감소에 기인. 거래시간 연장으로 정보 거래자가 야간세션에서 오버나이트 정보에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개장 시점의 정보비대칭이 완화되고, 개장 경매의 역선택이 줄어 비정보 거래자에 대한 스프레드가 축소

야간 선물 가중평균가격공헌(WPC): 비대칭 W자 곡선



구조적 한계도 존재

- 야간선물은 기관의 1순위 야간 헤지 도구이지만, 개별주 선물 미제공·주말 공백·유동성 제약·베이스스 괴리라는 네 가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완전한 가격 발견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개별주 선물 부재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종목을 직접 헤지할 수 없고, 주말에는 약 60시간의 거래 공백이 발생하는 점이 실질적 리스크 관리에 제약으로 작용함

야간선물 구조적 한계와 보완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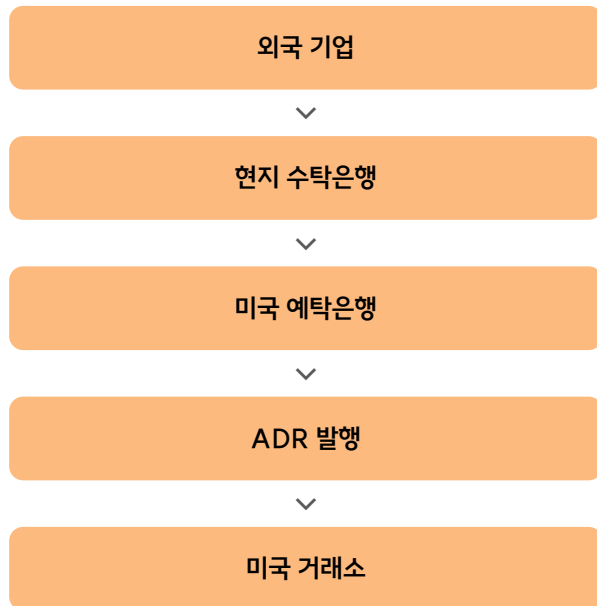
한계 유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① 개별주 선물 미제공	야간거래 대상은 지수·통화·금리 10종목에 한정되어 개별 주식 선물은 포함되지 않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 직접 헤지 불가능, 반도체 비중이 큰 포트폴리오는 지수 헤지로 간접 대응에 그침
② 주말·공휴일 공백	금요일 18:00~토요일 06:00 운영 후 종료, 월요일 거래 재개까지 헤지 공백 발생 한국 공휴일에는 야간거래도 동시에 휴장
③ 유동성 제약	정규장 대비 호가가 얇고 스프레드가 넓어 원치 않는 가격에 체결될 위험 상존 KRX는 야간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식 명시
④ 베이스스 괴리	야간에는 현물지수 가격 변동이 없어 이론가격 산출에 한계 야간선물이 익일 시가 기대를 반영하면서 베이스스 괴리가 확대될 수 있음
결론	이 공백(개별주 + 주말)을 보완하는 수단: ADR(개별주·평일) + 무기한선물(24/7)

자료: SK증권

ADR이란 무엇인가

-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은 미국 예탁은행(BNY Mellon, Citibank, JPMorgan 등)이 외국 기업의 본국 주식을 현지 수탁은행에 예치하고, 이에 상응하는 증서(ADR)를 발행해 미국 거래소에서 달러(USD)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양도성 증서
- ADR 이론가격은 $[기초주가 \times 환율 \times (1 / \text{ADR비율})]$ 로, 차익거래가 본주와 ADR 간의 괴리를 축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전환비용·시차·규제 등의 이유로 완전 수렴은 어려움
- 기존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ADR 종목들은 대부분 Level 2이나, SK하이닉스는 신규 자본조달 + 완전 SEC 등록으로 Level 3 ADR에 해당함

ADR 상장 구조



ADR 유형별 특징

유형	거래소	규제	자금 조달	비고
Lv.1	OTC	SEC보고면제	불가	유동성 낮음
Lv.2	美거래소	SEC등록의무	불가	거래소 유동성
Lv.3	美거래소	SEC+GAAP	가능 (IPO)	SK하이닉스 사례
144A/ RegS	QIB전용	사모(미등록)	사모만	기관투자자만

한국 주식 ADR 상장 현황

-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한국 주식 ADR들은 은행과 통신 등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종목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부분 거래 자체도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등 유동성이 낮아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 국내 종목들 중 가장 큰 규모를 지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DR이 없었기에 미국발 반도체 정보는 KOSPI200 야간선물로 간접 전달되는 구조를 지녔음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ADR 종목 목록

티커	기업	거래소	ADR 비율	섹터	예탁은행
KB	KB금융	NYSE	1:1	은행	J.P. Morgan
SHG	신한금융	NYSE	1:1	은행	BNY Mellon
WF	우리금융	NYSE	1:3	은행	Citibank
PKX	POSCO홀딩스	NYSE	1:0.25	철강	BNY
KEP	한국전력	NYSE	1:0.5	전력	J.P. Morgan
SKM	SK텔레콤	NYSE	1:5/9	통신	Citibank
KT	KT	NYSE	1:0.5	통신	Citibank
LPL	LG디스플레이	NYSE	1:0.5	디스플레이	Citibank
SKHY	SK하이닉스(상장 예정)	NASDAQ	1:0.1	반도체	Citibank

SK하이닉스 ADR 상장: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가

- SK하이닉스 ADR 상장은 반도체 섹터 최초의 대형 한국 ADR이 될 예정이며 상장일은 2026.07.10 예정
- 이는 미국 시간대 메모리·AI 정보가 ADR 가격 변동 및 익일 KRX 시가에 직접 전달되는 새 경로로 작용할 것이며, 마이크론(MU)과 동일 거래소·통화에서 직접 비교될 예정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트리거가 될 수 있음
- 특히 상장 초기 TSMC식 프리미엄(10~20%)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시점부터는 국내 증시 내 본주 가격 대비 괴리율이 실제 국내 정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생김

SK하이닉스 ADR 상장 개요

항목	내용
이사회 승인	2026.6.24
상장 거래소	Nasdaq Global Select Market (티커: SKHY)
발행규모	최대 45.45조 원 (약 \$29.65B)
신주	1,779만 주 (발행주식 ~2.5%)
ADR 비율	보통주 1주 = ADR 10주 (ADR ~1.779억 주)
예탁은행	Citibank
주관사	BofA · Citi · Goldman Sachs · JP Morgan
ADR 상장일	7월 10일 (잠정)
신주 KRX 상장	7월 29일
의의	알리바바(2014, \$21.8B) 초과 시 사상 최대 ADR

해외 대표 예시: ASML, TSMC, BABA

- 미국 외 해외에서 ADR 상장한 종목들의 대표 예시는 ASML(네덜란드), TSMC(대만), 알리바바(홍콩)를 들 수 있을 것. 이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장 정보가 시차를 두고 현지 시가에 갭으로 전달되는 경로가 존재함
- 본주와 ADR 간의 가격 괴리가 발생하는 여부를 가르는 핵심 사유는 전환 구조로 판단. ASML(1:1) · Alibaba(1:8)는 양방향 완전 자유전환이 가능해 차익거래로 가격 수렴이 일어나 프리미엄이 거의 없을 때가 대부분
- TSMC는 비대칭 구조(ADR > 대만주 전환은 자유이나 신규 ADR 발행은 규제승인 필요로 ADR 공급 경직)로 구조적 프리미엄이 형성됨
- SK하이닉스는 조건부 캡*(양방향 전환을 허용하되 '지정 최대한도' 초과 시 사전동의 필요)으로, 캡 수준이 프리미엄 형성 여부의 관건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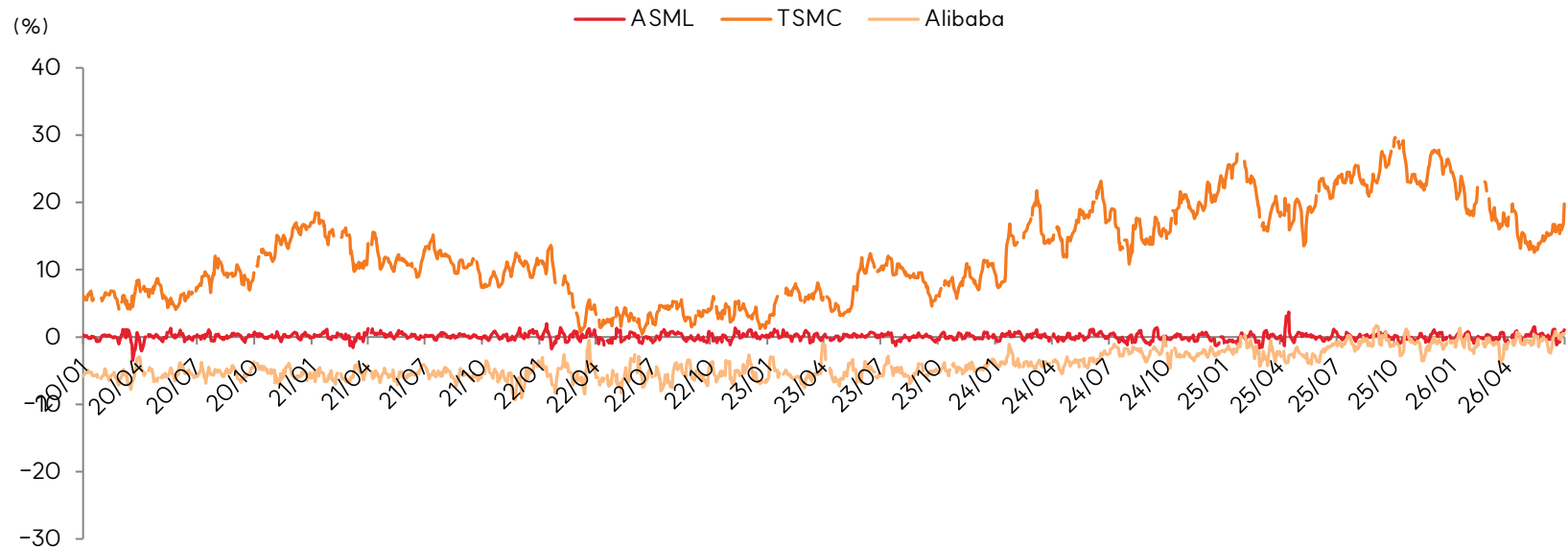
해외 주요 ADR 상장 구조 비교

항목	ASML	Alibaba(BABA)	TSMC(TSM)	SK하이닉스(SKHY)
본주 거래소	Euronext AMS	HKEX (9988)	TWSE (2330)	KRX (000660)
미국 거래소	Nasdaq	NYSE	NYSE	Nasdaq
ADR 비율	1:1 (Registry)	1 ADS=8 HK주	1 ADS=5 TW주	1 KR주=10 ADS
예탁기관	JPMorgan	Citibank	Citibank	Citibank
양방향 전환	✓ 완전 자유	✓ 완전 자유	Ⓜ 비대칭	Ⓜ 조건부 캡*

해외 ADR 프리미엄

- 본주와 ADR 간에는 전환 구조가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판단. 차익거래가 가격 괴리를 대부분 상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전 자유전환인 ASML과 알리바바는 적은 괴리율 범위 내에서 본주와 사실상 동행
- 반면 TSMC는 상시 프리미엄 상태에 놓여 있는데, 신규 ADR 발행 규제로 공급이 경직된 결과 높은 프리미엄이 상수가 됨. 즉 ADR 프리미엄은 이상 가격이 아니라 전환 마찰의 가격으로 전환이 자유로우면 0%로 수렴하고, 공급이 막히면 초과 수요가 프리미엄으로 누적되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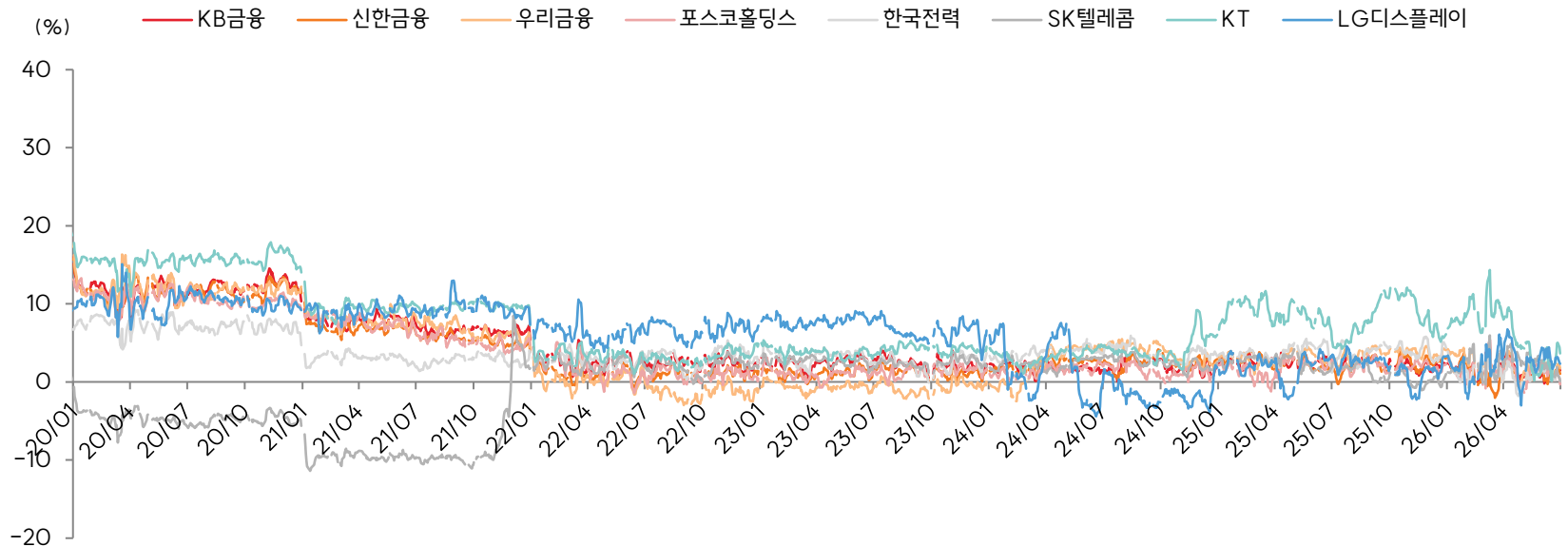
해외 ADR 본주 대비 프리미엄/디스카운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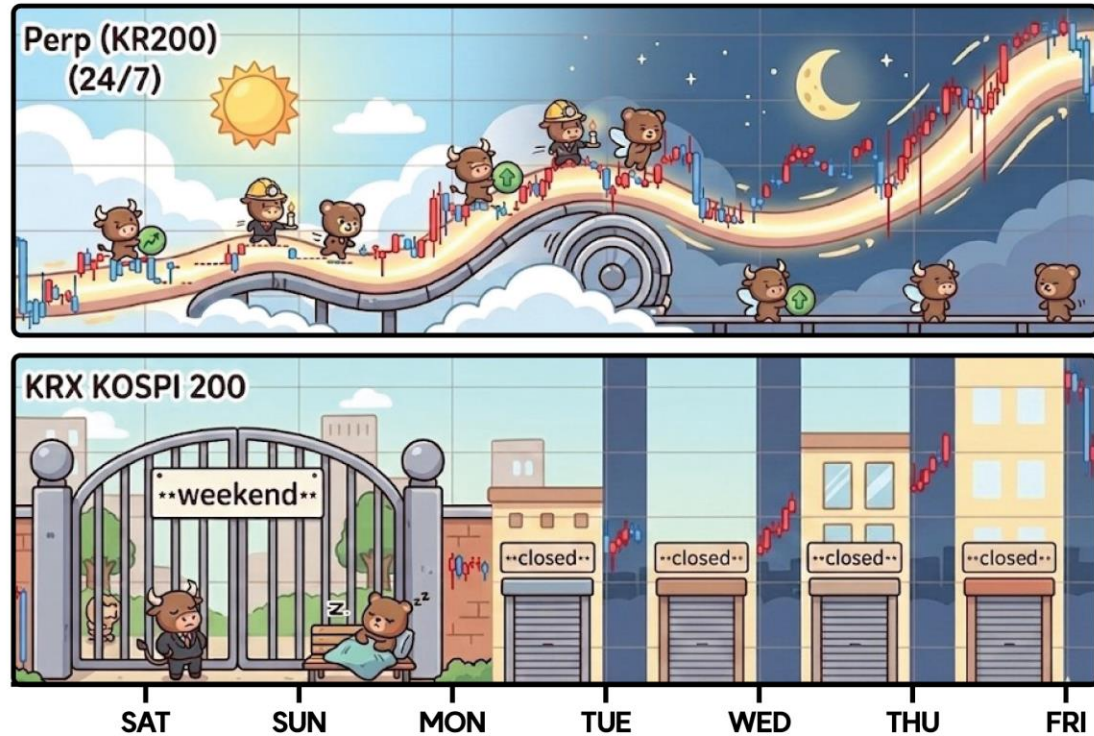


국내 ADR 프리미엄

- 국내 ADR은 대부분 양방향 전환이 허용되는 자유전환형으로 대부분 종목의 프리미엄이 좁은 밴드로 수렴하며, TSMC형 구조적 프리미엄은 부재
- 물론 팬데믹 유동성 위기 국면의 일시 현상으로 단기간 괴리는 나타날 수 있으며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경향이 강하기에 개별 수급 요인에 의해 종목별 프리미엄/디스카운트는 발생 가능
-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ADR 상장 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정 최대한도가 도입되면 캡 도달 전까지는 0% 부근, 도달 이후에는 TSMC형 프리미엄 형성 가능성도 존재함

국내 ADR 본주 대비 프리미엄/디스카운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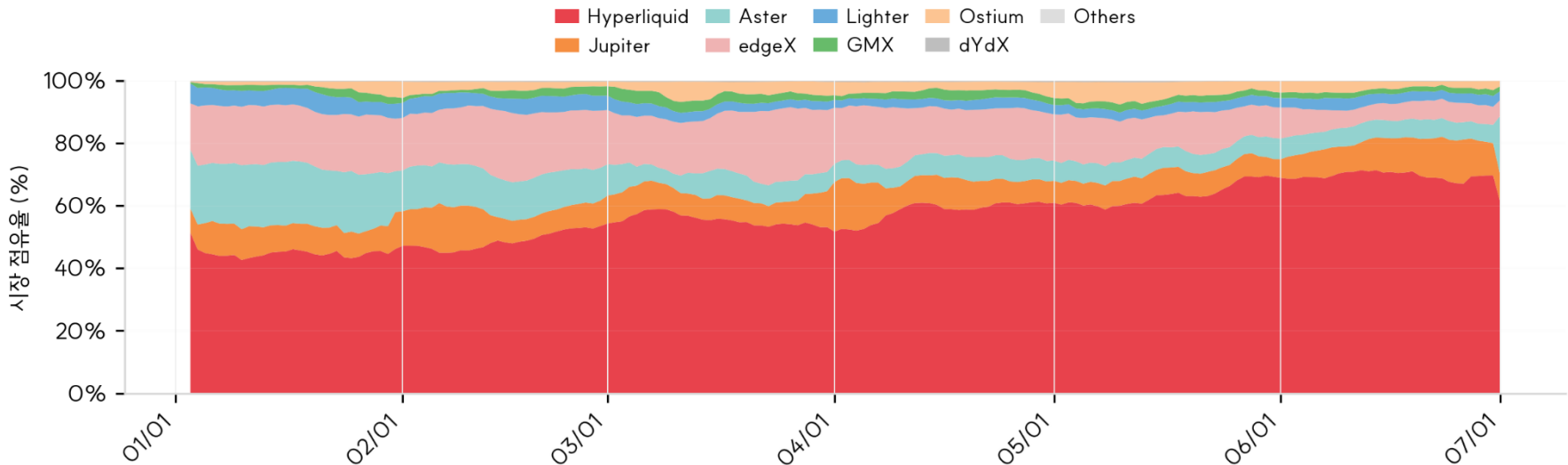
Part 2.

새로운 가격발견 도구: 무기한 선물

무기한 선물이란?

-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은 만기 없는 파생상품. 전통 선물의 롤오버 비용 제거, 현물 가격에 연속 추적하는 기능을 가짐
- 가격 수렴 메커니즘은 펀딩레이트(Funding Rate)에 기반하는데, 롱 과열 시 롱이 숏에게 지급, 숏 과열 시 숏이 롱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무기한 선물의 가격이 현물에 수렴
- 정산 주기는 Binance, OKX 8시간, Hyperliquid 1시간으로 주기가 짧을수록 시장 심리 극단치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처럼 연중무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에 전통 시장 폐장 시간(야간·주말·공휴일)에도 가격발견 효과를 지속적으로 냄
- 거래 분야는 처음에는 가상화폐로 시작해서 현재 주식·원자재·FX·지수 등으로 빠르게 확장 중이며 Hyperliquid의 HIP-3(2025.10~)가 주식 무기한 선물 거래의 선두 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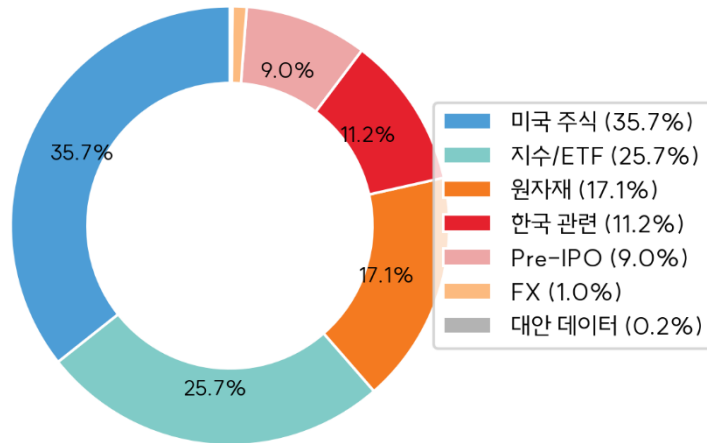
주요 무기한 선물 거래소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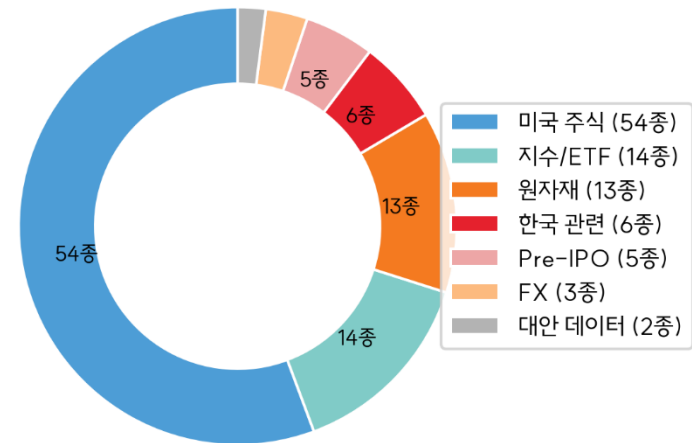
Hyperliquid HIP-3 자산 클래스 분포

- 하이퍼리퀴드 거래소 내 무기한 선물은 HIP-3(빌더 배포) 마켓 기준 100여 개로 구성: 미국 주식 54종, 지수/ETF 14종, 원자재 13종, 한국 관련 6종, Pre-IPO 5종, FX 3종, 대안 데이터 2종 등
- 미국 주식은 Magnificent 7과 반도체(MU·INTC·AVGO), AI/SaaS 관련주 등을 포괄하며, 한국 관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인 투자 대상

자산 클래스별 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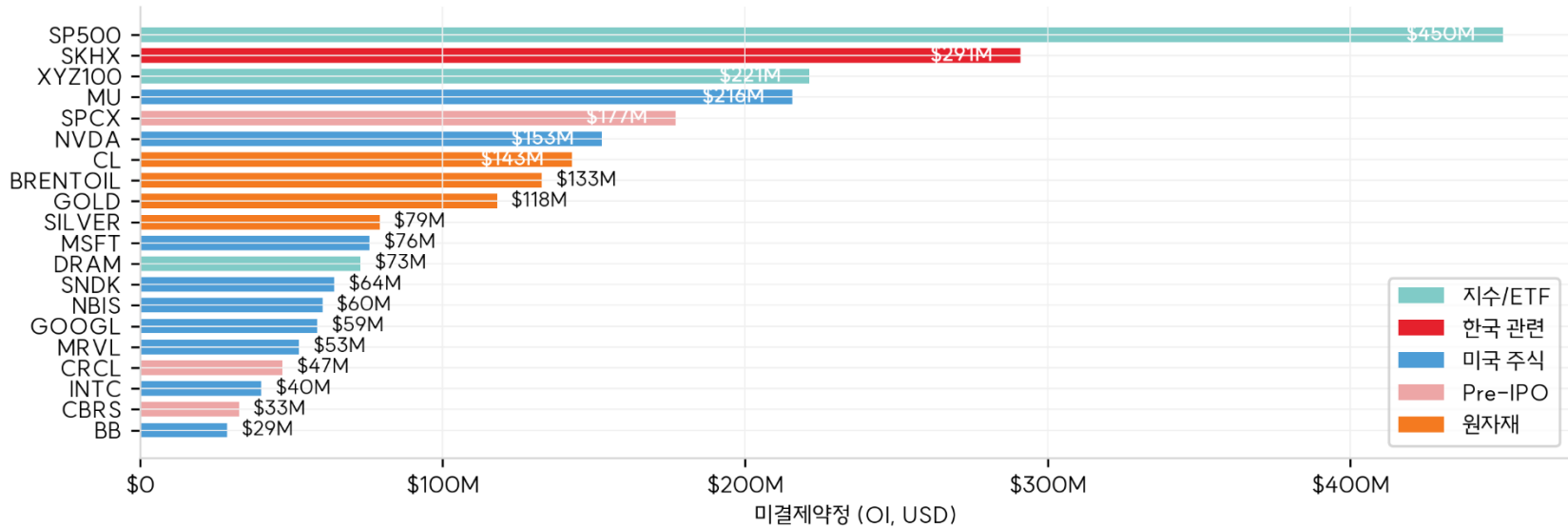
자산 클래스별 종목 수



미결제약정 상위 자산

- 미결제약정 기준 상위 자산은 S&P500, SK하이닉스, XYZ100(거래소 상장 무기한 선물 주식 전체의 방향성을 추적하는 고유 100종목 인덱스), 마이크론, 스페이스X 등으로 지수형을 제외하면 주식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산들이 상위권에 형성
- 이외에는 원유, 금, 은 등 원자재 또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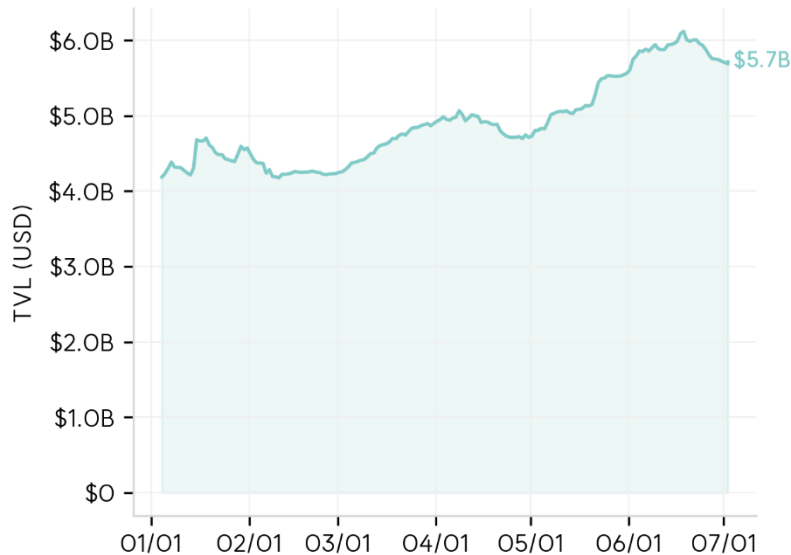
xyz DEX OI Top 20



Hyperliquid 총 가치/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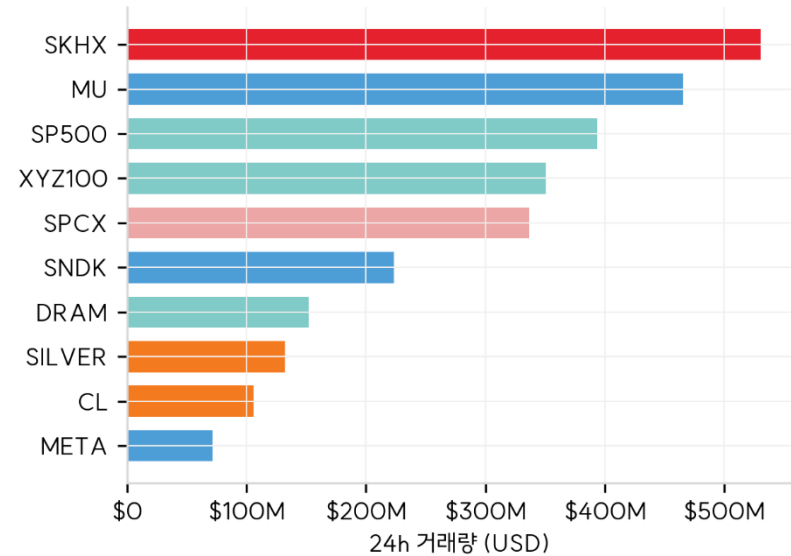
- 하이퍼리퀴드 플랫폼 TVL(Total Value Locked)은 연초 약 \$4.2B에서 \$5.7B로 확대(6개월간 약 +36%)되었는데, 담보 풀 확대가 미결제약정 수용력 증대와 가격발견 신뢰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 최근 거래량 상위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S&P500, XYZ100, SpaceX 순으로 한·미 반도체와 지수 상품에 거래 집중되는 경향. 거래 회전율은 지수/원자재보다는 주식 관련 무기한 선물이 높아 용도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짐

Hyperliquid TVL(Total Value Locked)



자료: Hyperliquid, SK증권

xyz DEX 24h 거래량 To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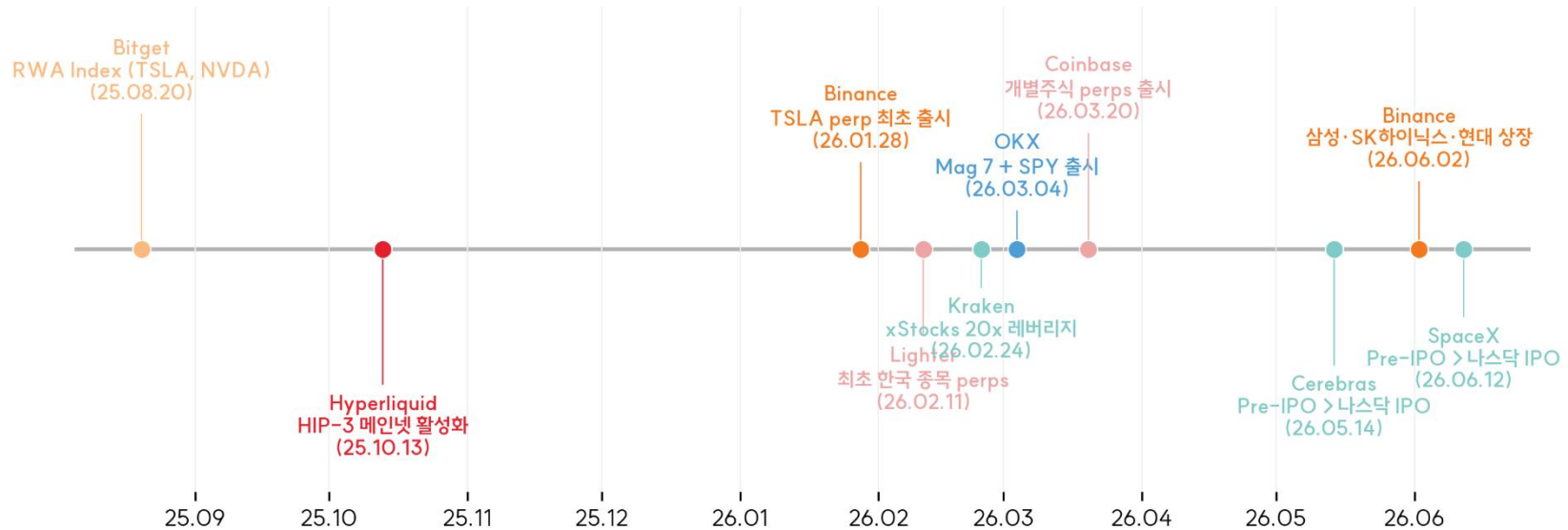


자료: Hyperliquid, SK증권

주식 무기한 선물 출시 경쟁

- 전통자산에 대한 무기한 선물이 주요 수익원으로 점차 성장하며 거래소 간 신규 자산 출시 및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 초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 또한 무기한 선물 시장 진입으로 가격발견 참여자가 다변화되고 차익거래가 확대되며 시그널 신뢰도 전반의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

무기한 선물 출시 타임라인





Part 3.

실전 활용 방안

비교 프레임워크: 8개 차원 매트릭스

- 투자 대상에 대해 신뢰도 우선순위를 차등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음
- 정상 장세에서는 유동성 · 정보품질 · 규제 전 차원에서 우위인 홈마켓 현물(KRX 정규장)이 가격발견을 지배함. 야간 · 주말에는 거래 가능한 유일 창구로 가격발견이 이동하는데, 평일 야간은 야간선물+ADR로 대체할 수 있으나, 주말 · 연휴 공백은 무기한 선물(perps)이 유일한 한국 주식의 가격발견 채널로 작용
- 8개 차원 비교 시 수단별 강약 뚜렷함. 무기한 선물은 가상화폐처럼 연중무휴 가격발견 기능이 강점이나 규제 공백(DEX) · 펀딩비 · 조작 취약성(오라클 · 청산)이 약점

가격발견 수단별 8개 차원 비교 매트릭스

차원	홈마켓 현물	야간 지수선물	ADR	무기한 선물
유동성 깊이	최고 (정규장)	중 (야간 얇음)	종목별 편차 큼	낮음~중, 파편화
참여자 정보품질	리테일+기관 혼재	기관·알고리즘 중심	미국 기관	리테일·알고, 기관 초기
차익거래 효율	기준	높음 (베이스스)	마찰 큼 (수수료·시차)	거래소 간 이동 불가
규제·건전성	높음 (KRX)	높음 (KRX/SGX)	높음 (SEC)	낮음 (DEX, 공백)
거래시간 중첩	홈 정규장만	홈 폐장 커버	미국장 (홈 야간)	24/7 전구간
FX 위험	없음 (원화)	거의 없음	큼 (USD/KRW)	중 (USDC/USDT)
캐리/펀딩비	없음	보유비용	배당·환헤지	펀딩비 (시변·극단)
조작 취약성	낮음	낮음	낮음	높음 (오라클·청산)

정규장 공백 보완 방안

- 정규장 공백을 보완하는 수단별 커버리지가 상이한데, KRX 마감 이후는 야간선물, 미국 정규장 시간대는 야간선물 · ADR로 부분 보완 가능
- 다만 주말과 한국 · 미국 동시 휴장 구간은 기존 수단으로 대응 불가하기 때문에 정책 이벤트가 주말에 집중되는 국면에서 공백 리스크가 가장 큰 구간임. 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모든 시간대를 커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공백시간 모니터링 대안으로 사용 가능

시간대별 헤지 수단 커버리지 비교

시간대	KRX	야간선물	ADR	무기한 선물
한국 정규장 (09~15:30)	○	×	×	○
KRX 마감~미국장 (15:30~23:30)	×	○	×	○
미국 정규장 (23:30~06:00)	×	○	○	○
주말 (토·일)	×	×	×	○
한국 연휴+미국 개장	×	×	△	○
한국+미국 동시 휴장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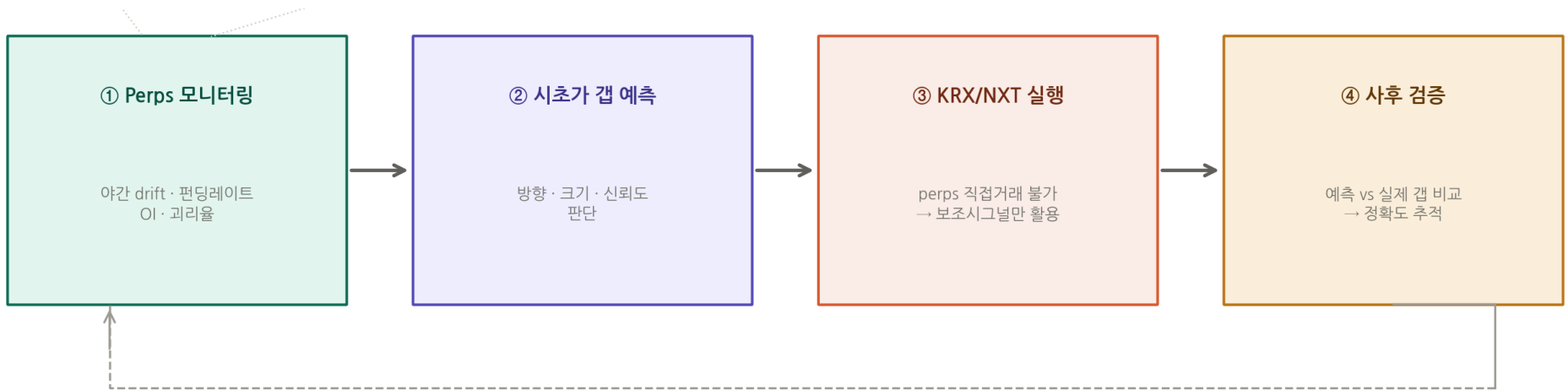
자료: 언론종합, SK증권

주: 해당 도표는 동절기 기준 / 미국 증시는 서머타임 기간 동안 22:30~05:00 거래

무기한 선물의 주식시장 참여자 활용 방안

- 규제·컴플라이언스상 무기한 선물을 직접 거래하는 데에 제약이 있기에 '거래 대상'이 아닌 보조 정보 소스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
- 야간·주말 시장심리를 정량화한 보조 시그널로 기존 분석 프레임에 레이어 추가하는 용도가 합리적이며, ① 시초가 갭 예측 ② 원유·원자재·지수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목적에 활용한다면 정보 비대칭을 줄일 수 있음
- 물론 무기한 선물은 유용한 보조 시그널이나 맹신은 금물이며 유동성·조작·규제·괴리의 4대 리스크 인지는 필수. 무기한 선물 시그널은 기존 분석의 보완재로 활용하고 단독 의사결정 기준으로는 사용 지양하는 것이 합리적

무기한 선물 시그널 사용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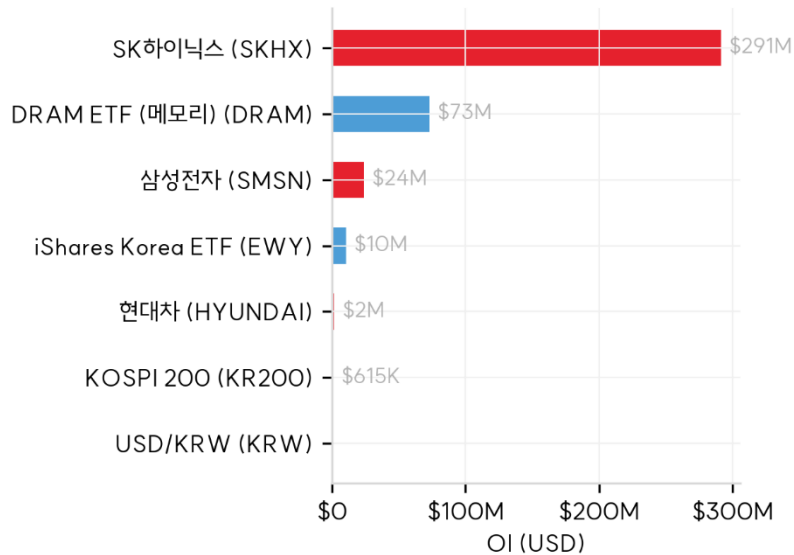
피드백 루프: 예측 정확도를 추적하여 시그널 해석 정교화

※ 법인 가상자산 2단계 미시행 → 직접거래 불가, 정보소스로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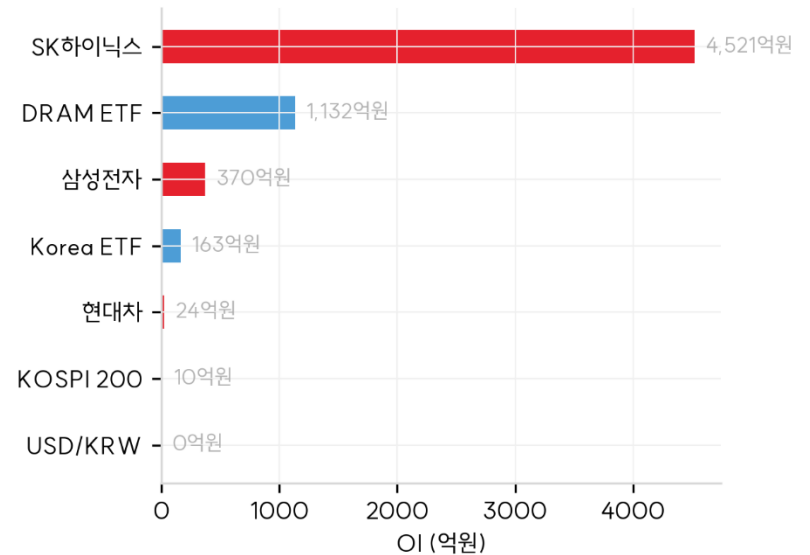
한국 관련 무기한 선물: 규모에 따른 신뢰도 조정

- 한국 증시 직간접적 관련 자산들에 대해서는 거래/미결제약정 규모에 따라 기대 신뢰도를 다르게 가져가야 할 것으로 판단
- SK하이닉스/삼성전자, 메모리 ETF, 미국 상장 한국 증시 ETF에 대해서는 거래 및 미결제약정 규모가 상당하기에 높은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으나, 현대차, 코스피200 지수 등은 현저히 낮은 거래 수준을 감안하면 보조 수단으로 눈높이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한국 관련 7종목 미결제약정(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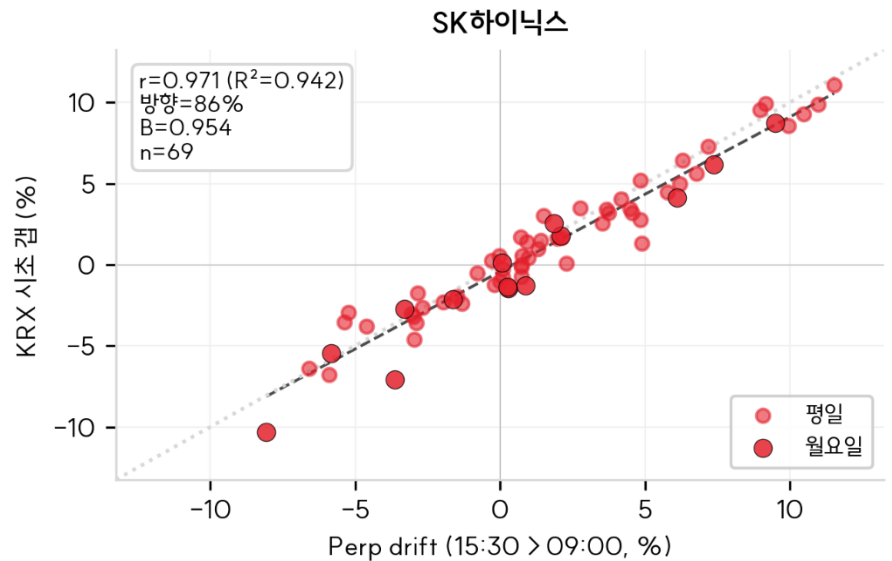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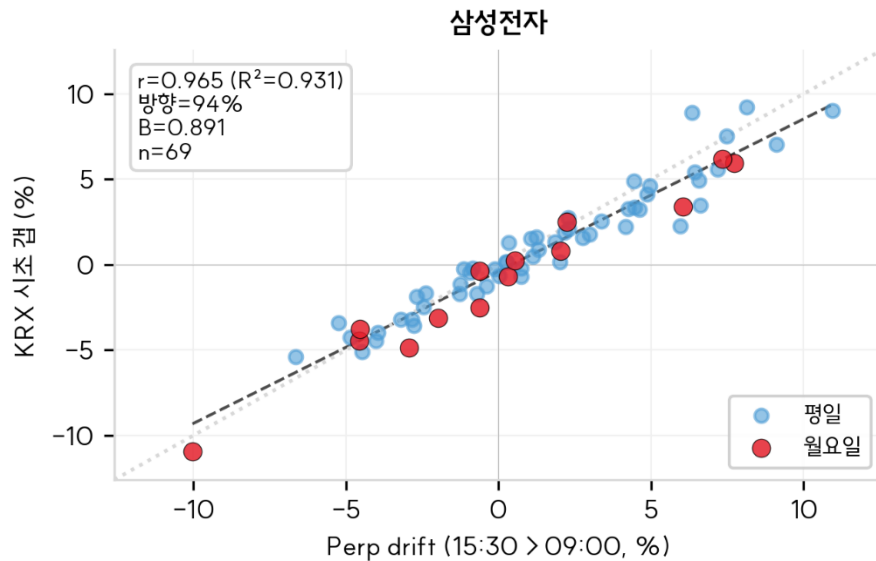
동일 데이터 원화 환산 (억원 단위)



무기한 선물 야간 Drift > KRX 시초 갭

- 야간 무기한 선물 가격 변동(15:30~익일 09:00)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초가 변동의 90% 이상을 설명
- 전일 증가 대비 야간 무기한 선물 변동이 크게 나타나면 과거 표본에서 갭업으로 이어진 비율이 높았으며, 주말이 누적되는 월요일엔 극단 갭 빈도가 상승하는 점에 유의하며 8시에 나타나는 넥스트레이드 시초가에 미리 대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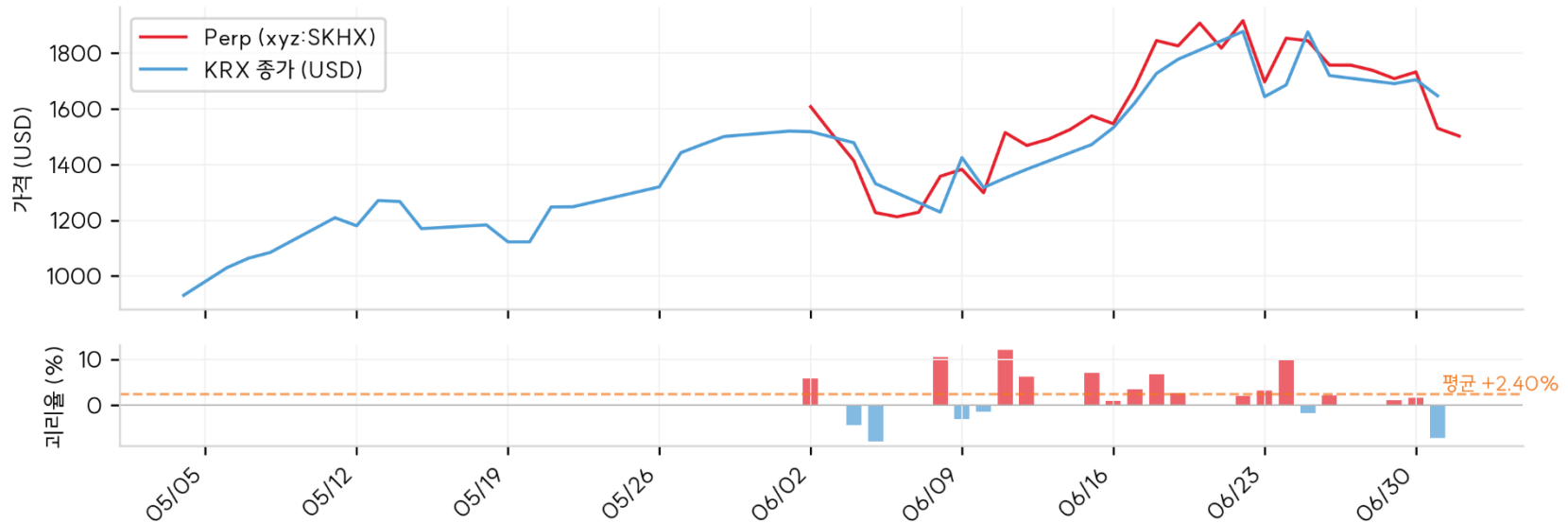
삼성전자 야간 무기한 선물 수익률 vs 시초가 갭



SK하이닉스 무기한 선물 vs KRX

- SK하이닉스 무기한 선물과 KRX 증가 간 평균 괴리율은 +2.40%로 프리미엄 반영(KRX 증가 시점 USD/KRW 환율 감안)
- SK하이닉스 미결제약정은 \$291M으로 한국종목 중 압도적 1위(전체 2위). 유동성이 충분해 가격발견 기능을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한국 주식시장 야간/휴일 시점 동안 시그널의 핵심 앵커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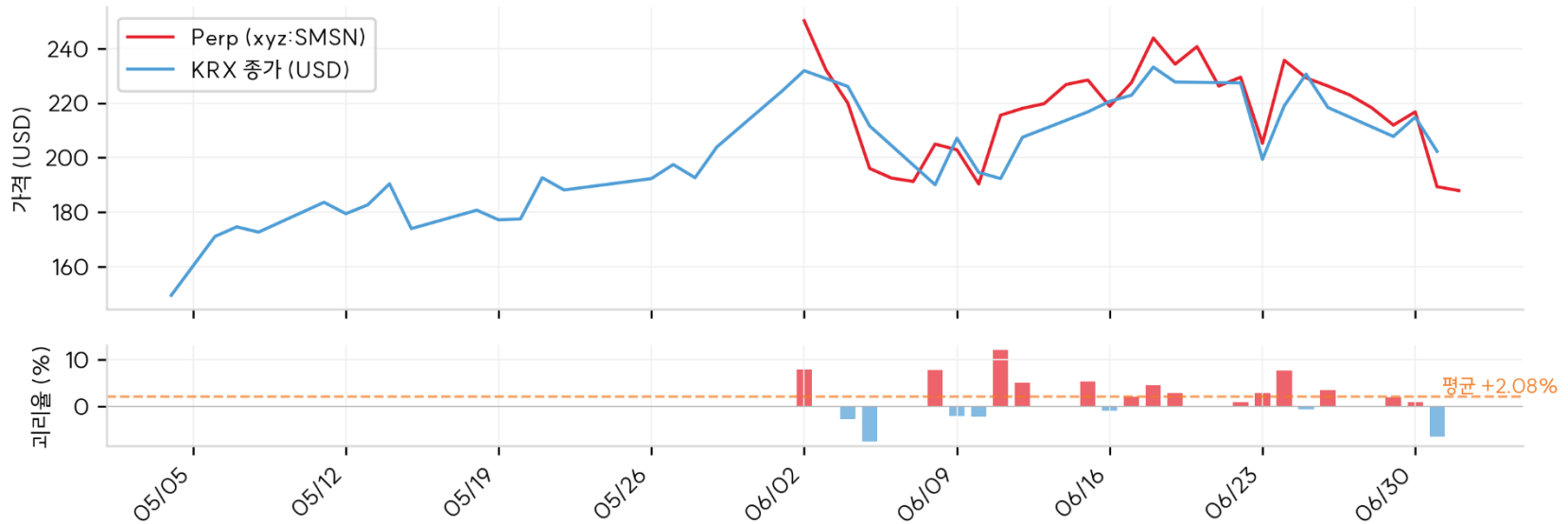
SK하이닉스 무기한 선물 vs KRX



삼성전자 무기한 선물 vs KRX

- 삼성전자 무기한 선물과 KRX 증가를 비교해 보면 평균 괴리율은 +2% 전후 (KRX 증가 시점 USD/KRW 환율 감안)로 무기한 선물이 KRX보다 높은 프리미엄에서 거래
- 삼성전자 무기한 선물의 미결제 약정은 \$24M으로 SK하이닉스(\$291M)의 1/10 이하. 보조 시그널로서의 기능 유효하나 SK하이닉스 대비 신뢰도에 대한 눈높이는 낮춰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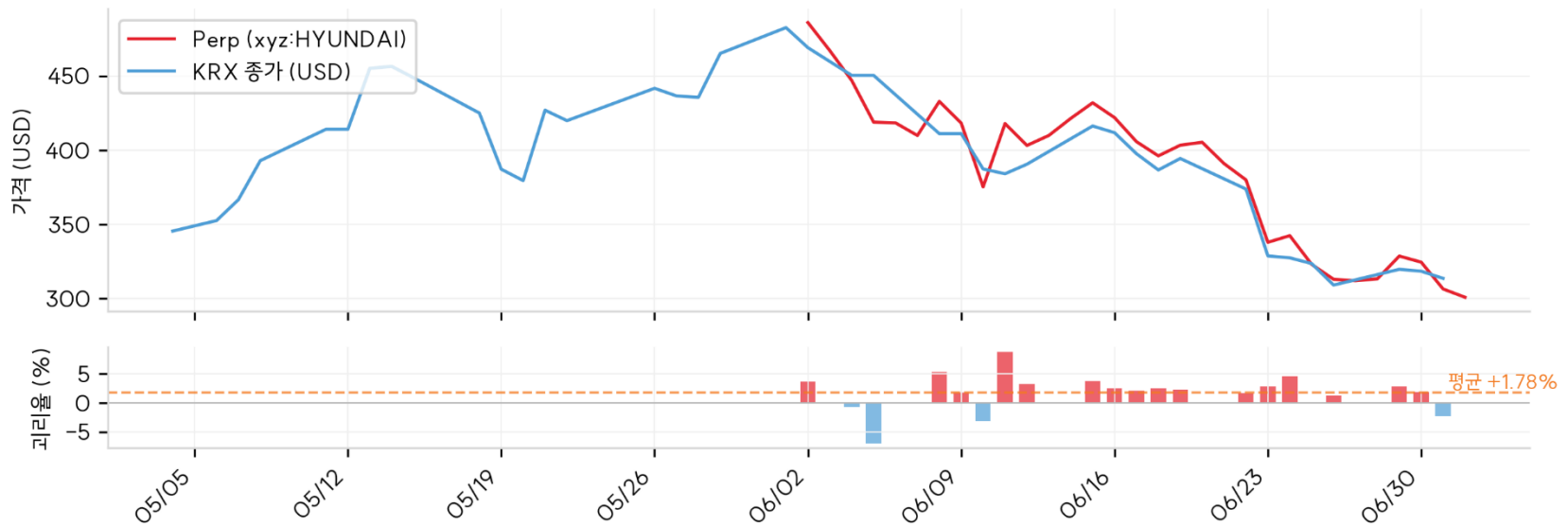
삼성전자 무기한 선물 vs KRX



현대차 무기한 선물 vs KRX

- 현대차 무기한 선물 미결제약정은 \$2M으로 삼성전자(\$24M)·SK하이닉스(\$291M) 대비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
- 평균 괴리율은 +1.78%(KRX 증가 시점 USD/KRW 환율 감안)로 가격발견 기능은 제한적이나 방향성 참고는 가능하며, 대형 주문 시 가격 왜곡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음. 단독 시그널로는 부적합하며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보조적 참고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현대차 무기한 선물 vs KRX



API를 활용한 가격 예측 가능

- 하이퍼리퀴드와 바이낸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API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데이터 접근성이 높으며, 이를 활용해 국내 관련 자산들의 가격 변동 수준을 가능해 볼 수 있음
- 보통 무기한 선물은 본주 대비 프리미엄을 받는 경향이 있기에 [무기한 선물 가격 * USD/KRW 또는 USDC/KRW]의 레벨로 계산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종료(정규장 기준 오후 3시 30분)부터 개장 전까지의 무기한선물 가격 변동 폭(Δ)을 통해 가격 예측을 하는 것이 합리적
- 또한 펀딩레이트 등의 시그널을 통해 국내 증시 종료 상태에서도 간접적인 투자심리를 파악할 수 있음

무기한 선물 가격을 이용한 한국 주식 예상가 대시보드 예시

한국주식 퍼프 · KRW 대시보드

Hyperliquid HIP-3 (xyz) · Binance USD-M · KRW 환산 환율 토크(USD/USD) · Δ3:30 = 정규장 마감(15:30) 대비 perp USD 순수 변동(FX 무관) · 60초 갱신

KRW 환산 기준 **USD** **USD**

● HL ● BN ● FX ● Upbit ● KRX

₩1,517

실제 USD ₩1,555 · USD 프리미엄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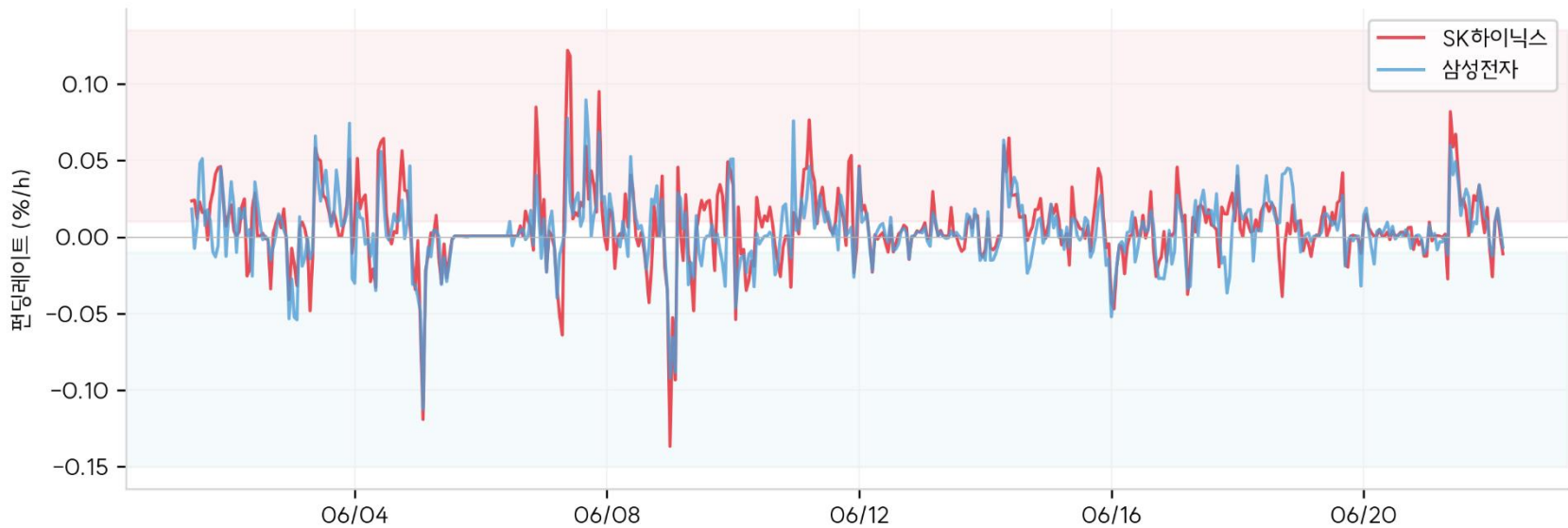
종목	HL MARK	HL KRW	HL Δ3:30	BN MARK	BN KRW	BN Δ3:30	KRX 종가	BASIS	HL FUNDING	BN FUNDING	HL OI	BN OI	갱신(KST)
삼성전자	186.88	₩283,497	+0.00%	187.03	₩283,731	-0.02%	₩288,500	-0.083%	+0.0236% +207.0% APR	+0.4130% +452.2% APR	\$25.61M	\$17.80M	14:48:27
SK하이닉스	1,482.20	₩2,248,497	-0.02%	1,488.53	₩2,258,096	-0.08%	₩2,289,000	-0.425%	+0.0335% +293.6% APR	+0.6836% +748.6% APR	\$289.98M	\$191.24M	14:48:27
현대차	312.49	₩474,047	-0.15%	313.50	₩475,574	-0.14%	₩483,000	-0.321%	+0.0220% +192.7% APR	+0.2270% +248.6% APR	\$1.36M	\$552.7K	14:48:27
KOSPI200	1,249.60 pt	지수	-0.39%	N/A	N/A	N/A	1,243.60 pt	—	+0.0195% +170.8% APR	—	\$609.0K	—	14:48:27

마지막 갱신: 2026-07-02 14:48:35 KST · Δ3:30 기준 07-02 14:48:27 KST

펀딩레이트 시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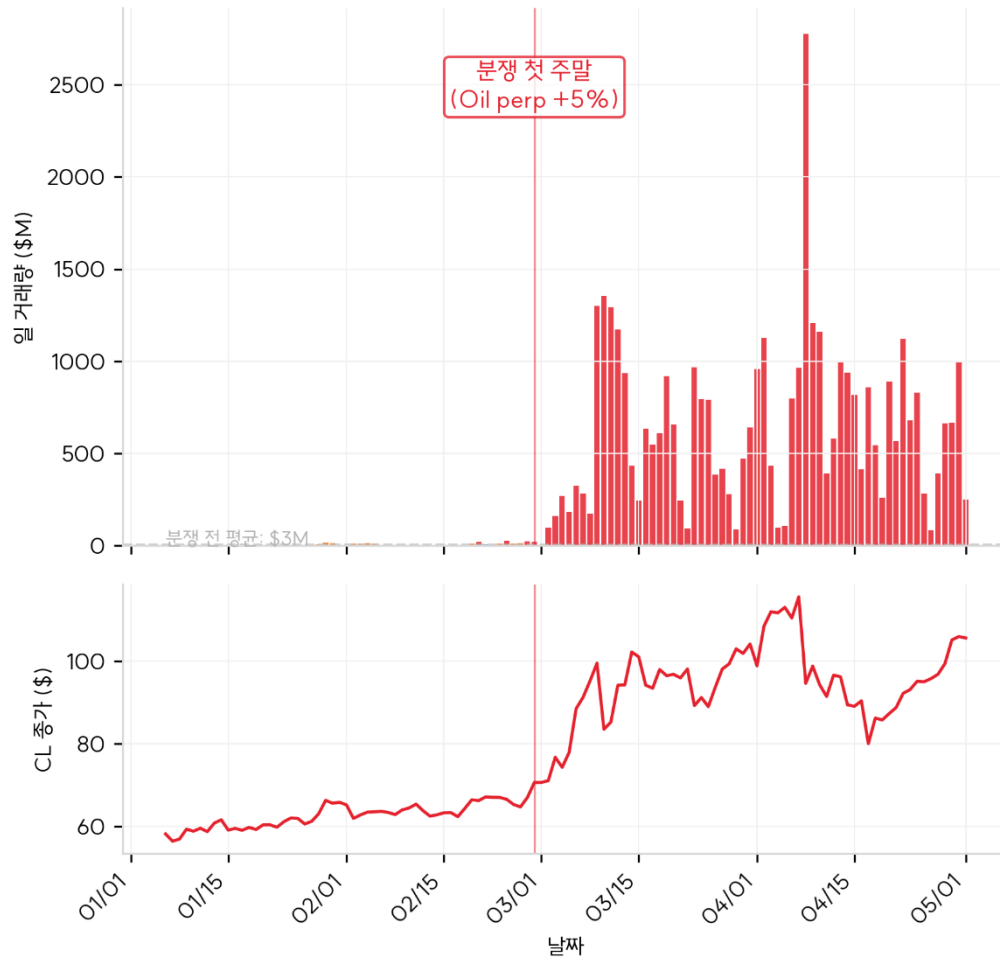
- 1시간 펀딩레이트는 양(+)이면 롱 과열, 음(-)이면 숏 과열을 의미해 시장センチ먼트의 실시간 지표로 사용 가능
- 하이퍼리퀴드는 1시간 정산으로 OKX나 바이낸스 등 CEX(8시간 정산) 대비 심리 극단치 포착 속도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관찰할 수 있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펀딩은 평상시 $\pm 0.02\%/h$ 이내에서 대체로 동행하는 경향이 강해 펀딩의 급변은 이벤트 시그널로 해석 가능

삼성 + SK하이닉스 1시간 펀딩레이트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유 무기한 선물

올해 3월 이란-미국 분쟁 당시 유가 무기한 선물 거래량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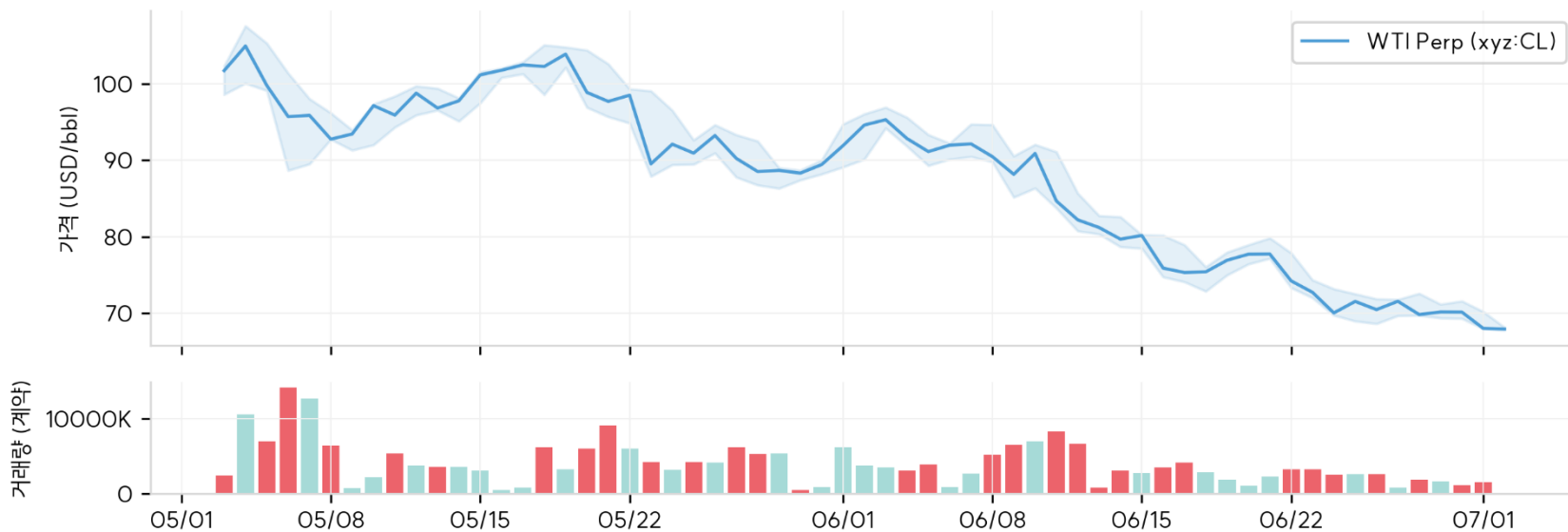
- 올해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당시 CME 주말 휴장 중 하이퍼리퀴드 원유 무기한 선물이 가격을 선제 형성해 전쟁 첫 주말 월요일 개장 갭을 사전 예고하는 역할을 했음
- 거래량에 대해서도 분쟁 전 일평균 \$3M에서 분쟁 후 일평균 거래량이 250배 이상으로 급증
- 유가의 급격한 변동성은 실제로 분쟁 격화 국면마다 무기한 선물 거래 급증과 동행
- 주말 원유 무기한 선물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월요일 포지션을 선제 조정 가능

자료: Hyperliquid, SK증권

원유 무기한 선물

- 원유 무기한 선물 또한 다른 자산군들처럼 24시간 연중무휴로 체결되는 원유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공해 CME가 주 5일·23시간 운영으로 남기는 주말·야간 공백을 해소. 야간·주말을 포함한 연속 가격으로 하락 국면을 공백 없이 추적
- Brent(BRENT OIL)와 WTI(CL) 무기한 선물을 결합하면 스프레드까지 24/7 실시간 추적 가능
- 무기한 선물의 가격은 펀딩 및 유동성 차이로 CME 선물과 구조적으로 괴리될 수 있어, 절대 수준보다는 방향성 지표로 참고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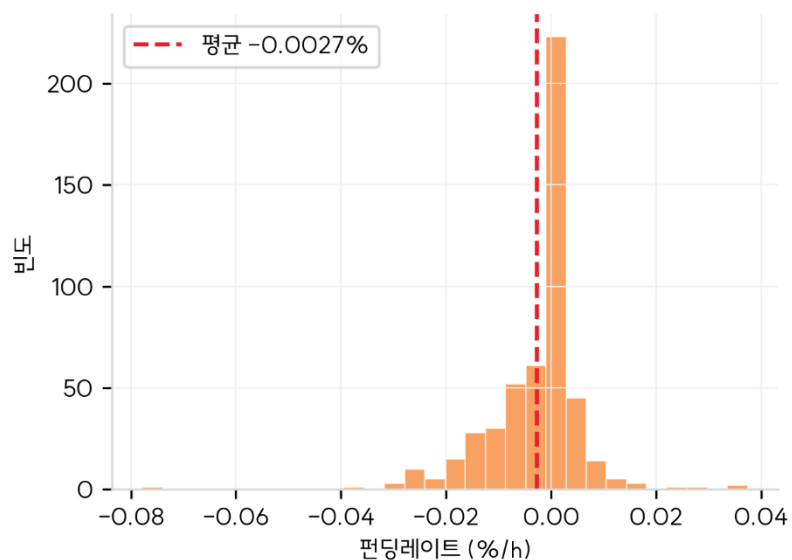
WTI 원유 무기한 선물 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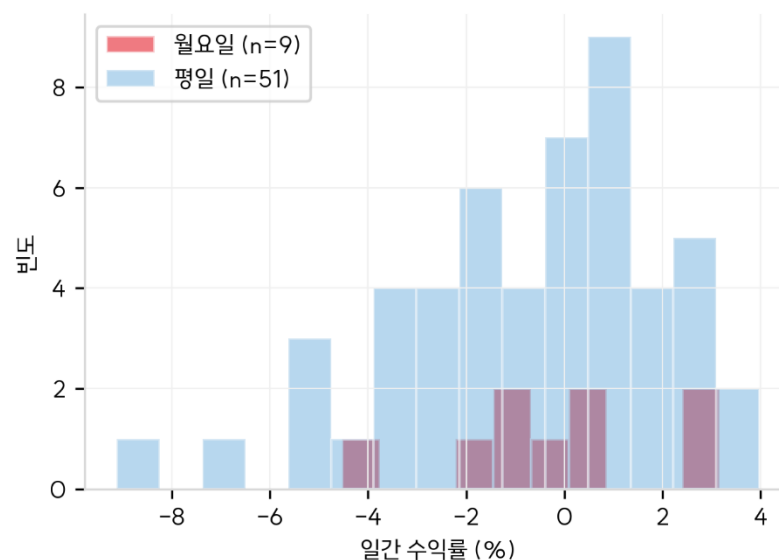
펀딩레이트 + 주말 변동

- S&P 500 무기한 선물 펀딩레이트(vs SPY)는 평균 $-0.0027\%/h$ 로 0 부근에 밀집, 대부분 $\pm 0.02\%/h$ 이내에 머물러 극단치는 공급 쇼크 또는 수요 급변 국면에서 발생
- WTI 월요일 수익률(n=9)은 평일(n=51) 대비 분산이 뚜렷하게 나타나 주말 갭의 존재를 실증. 주말에도 체결되는 무기한 선물로 갭 방향을 사전에 포착 가능

S&P 500 무기한 선물 vs S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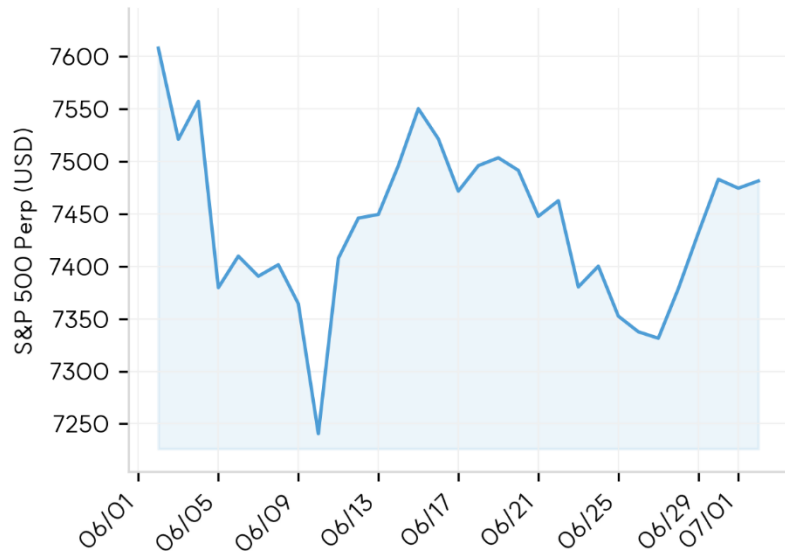
WTI 월요일 vs 평일 수익률 분포



주가지수에도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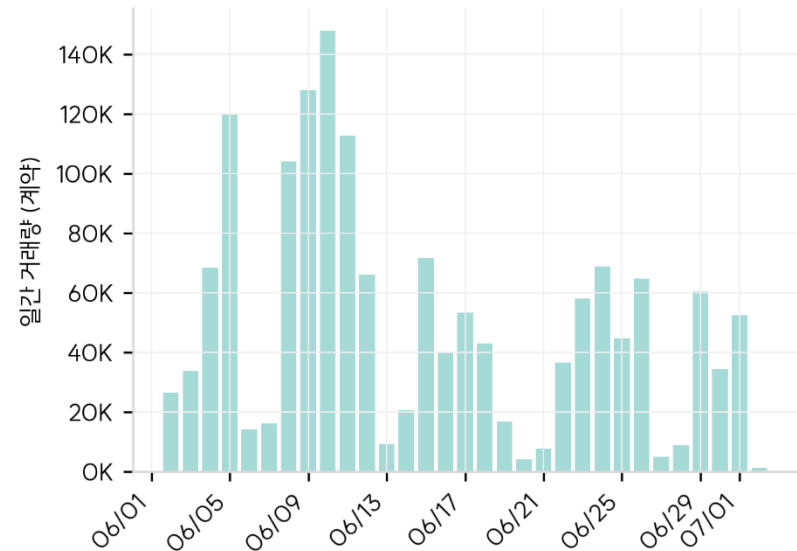
- S&P500 무기한 선물은 미결제약정이 \$450M으로 HIP-3 내 최대이며 S&P DJI 공식 라이선스 기반의 야간 매크로 벤치마크
- 여기에 더해 자체 산정 개별 지수도 존재하는데, XYZ100은 Hyperliquid 고유 100종목 인덱스로 크립토 거래소 상장 주식 전체의 방향성 추적하는 역할을 함

S&P 500 무기한 선물 가격 추이



자료: Hyperliquid, SK증권

S&P 500 무기한 선물 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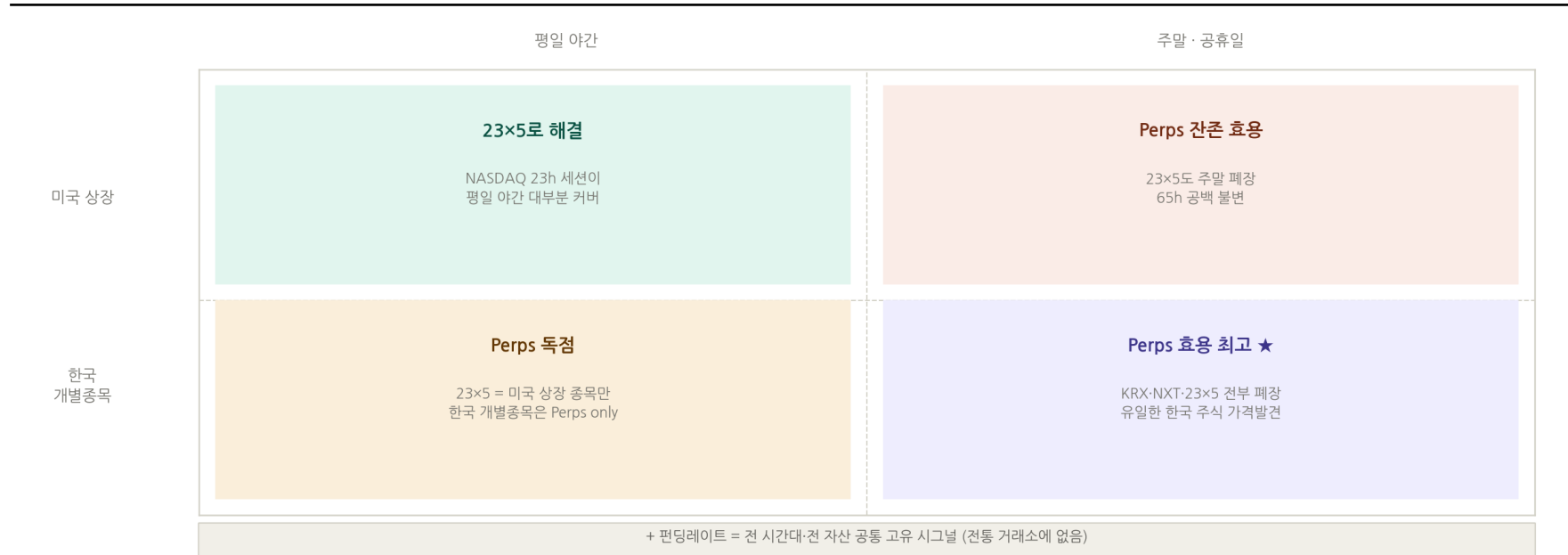


자료: Hyperliquid, SK증권

23×5 시대에도 무기한 선물은 필요

- 23×5는 미국 거래소의 평일 23시간 거래 체제로, 연말 런칭 목표(인프라 지연 가능성 감안한다면 올해 말~ 내년 초 도입 가능성 높음)
- 23×5가 해소하는 영역은 평일 야간 공백을 대폭 축소하며 미국 증시의 마감 후 공백이 줄어들. 다만 23×5로 대체 불가능한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① 주말(48~65.5시간) ② 미국 공휴일 ③ 펀딩레이트 고유 시그널 등
- 23×5 도입 이후에는 평일 야간은 23×5가 커버하고 무기한 선물은 주말·공휴일에 가치가 극대화되는 구조로 변화 예상. 한국 개별종목은 23×5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무기한 선물이 유일한 야간 가격발견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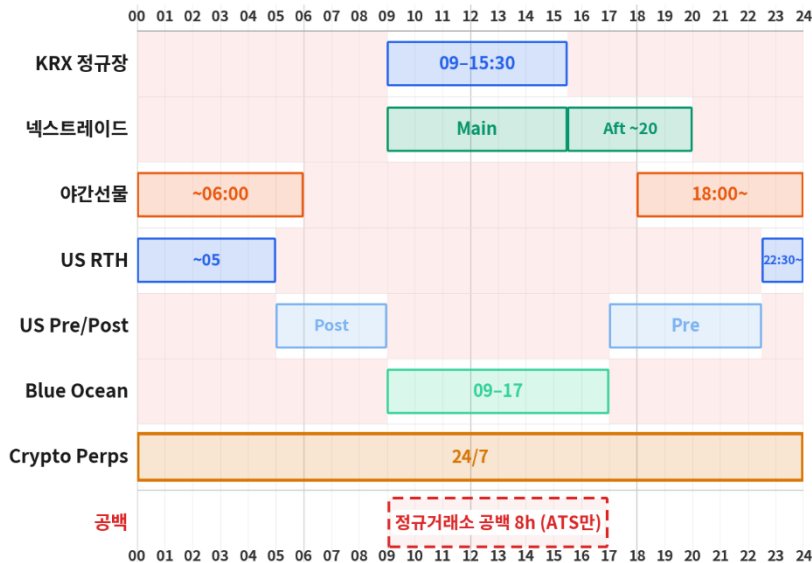
23×5 도입 이후 시간대별 무기한 선물 효용 2×2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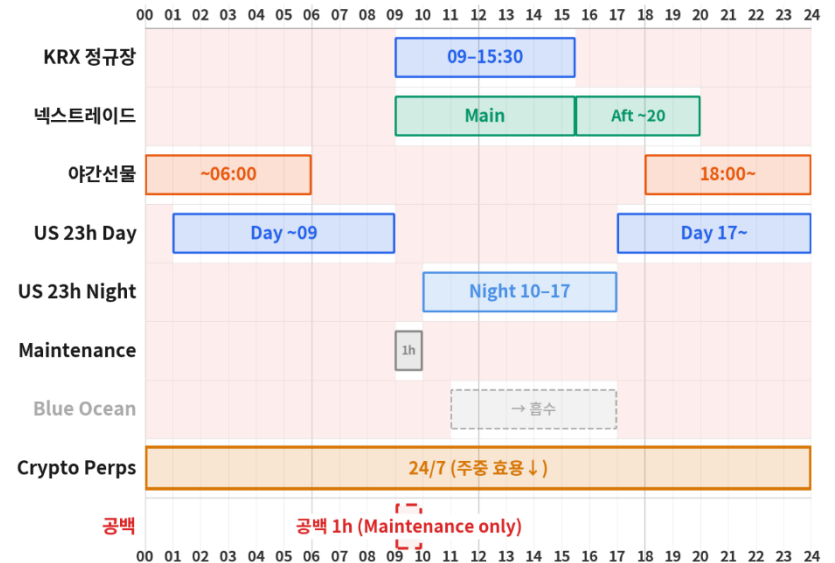
타임라인 1: 평일

- 평일 현재: 정규거래소 기준 공백은 약 8시간(ATS 프리마켓만 가동). KRX·넥스트레이드·야간선물·Blue Ocean이 시간대별로 부분 커버하고, 24시간 연속은 무기한 선물뿐
- 23x5 이후에는 US 23h 체제가 Day 세션(KST ~09시, 17시~)과 Night 세션(KST 10~17시)으로 하루를 사실상 전부 커버하고, Blue Ocean(ATS)은 이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 공백은 현재 약 8시간에서 23x5 이후 1시간(Maintenance 구간)으로 대폭 개선
- 잔여 공백에서의 무기한 선물의 역할은 정비 1시간 등 미장·KRX가 모두 닫히는 틈새에서는 여전히 유일한 가격 소스로 작용할 것. 평일 무기한 선물 효용은 23x5 도입으로 야간 공백이 줄며 주중 효용은 감소하나 완전 소멸은 아님

현재 평일 거래시간 타임라인



23x5 이후 평일 타임라인



타임라인 2: 주말

- 현재는 금요일 KRX 마감부터 월요일 KRX 시가까지 65.5시간 공백(미장 마감 시간부터 시가까지는 52시간)이 발생하며 최대 리스크 구간
- 23x5 이후에도 NASDAQ 23시간 거래는 월~금에만 적용되기에 주말은 여전히 완전 폐장이어서 공백이 그대로 유지
- 클리어링 인프라·기업공시·규제 사유 등의 구조적 제약으로 전통 거래소의 주말 개장 전망은 극히 낮음
- 주말 65.5시간 동안 무기한 선물은 유일한 가격발견 채널이며 23x5 이후에도 독점 지위 유지 전망

현재 주말 거래시간 타임라인



자료: Hyperliquid, SK증권

23x5 이후 주말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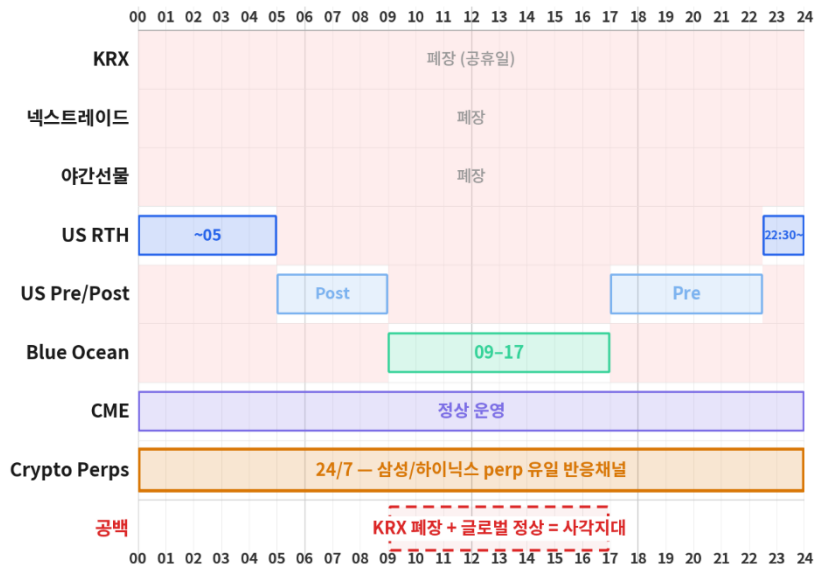


자료: Hyperliquid,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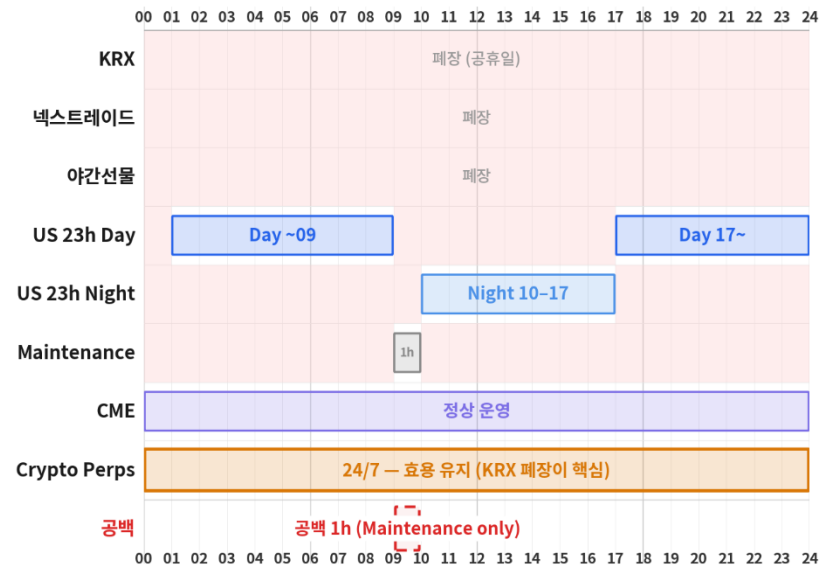
타임라인 3: 한국 공휴일

- 한국 공휴일에는 KRX·넥스트레이드·야간선물이 모두 폐장하지만 미국은 정상 개장해 KRX 폐장과 글로벌 정상 가동이 겹치는 사각지대로, 무기한 선물 효용이 높은 구간
- FOMC 등 글로벌 메가 이벤트가 한국 공휴일에 발생하면 정보 단절 위험이 있는데, 무기한 선물은 한국종목의 유일한 실시간 가격 소스로 이벤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 공휴일 거래시간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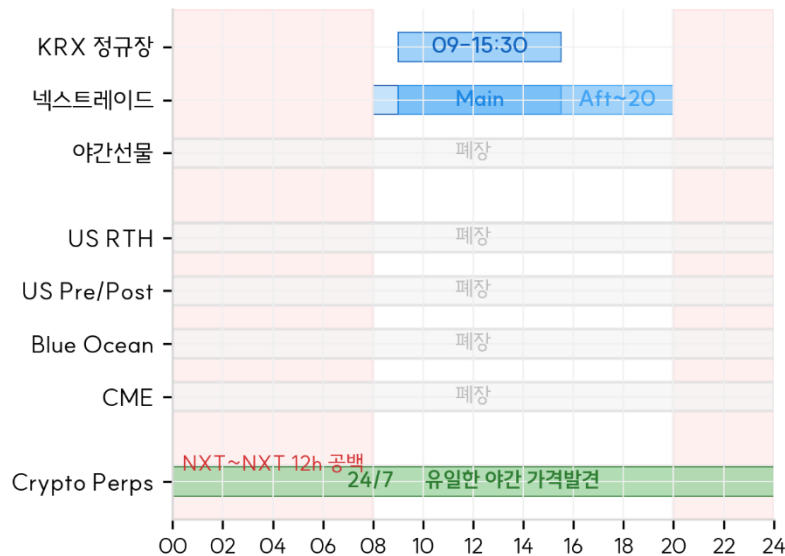
23x5 이후 한국 공휴일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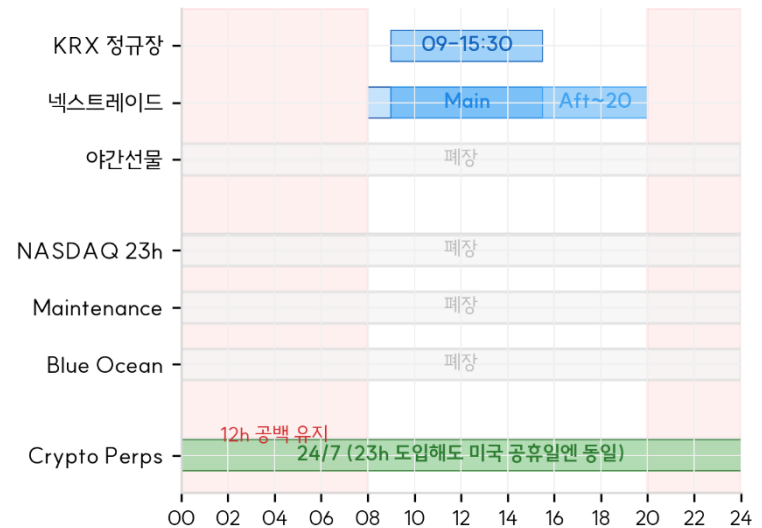
타임라인 4: 미국 공휴일

- 미국 공휴일에는 KRX는 정상 개장하지만 미국 거래소는 폐장. KRX 장중은 문제없으나 NXT 마감(20시) 이후 약 12시간 공백이 발생
- 23x5 도입 이후에도 미국 공휴일에는 Night 세션 역시 폐장으로 12시간 공백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무기한 선물물의 효용에는 변화가 없어 글로벌 매크로 시그널 소스 역할이 유지됨
- 물론 미국 공휴일에는 무기한 선물 거래량도 감소해 평시 대비 유동성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사례가 많아 시그널에 대해서 눈높이를 하향 조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미국 공휴일 거래시간 타임라인



23x5 이후 미국 공휴일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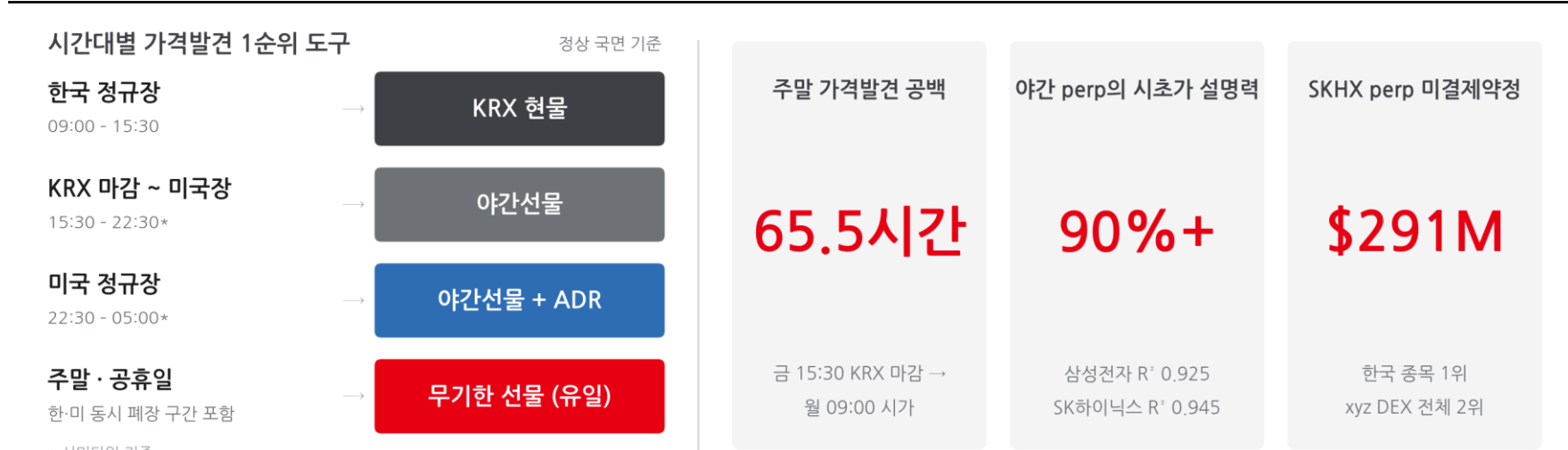


23x5 도입 이후에도 미국 공휴일엔 NASDAQ 폐장 - perps 효용 변화 없음

Key Takeaways

- 시간대별 가격발견 1순위 도구는 국면별로 교체해야 함. 한국 정규장 내에서는 KRX 현물, KRX 마감~미국장에서는 야간선물(+ADR), 주말·공휴일 65.5시간 공백 구간에서는 무기한 선물이 유일한 실시간 가격 소스
- 폐장 시간 동안 무기한 선물의 KRX 시초가 설명력은 90%를 상회하기에(삼성전자 R² 0.925, SK하이닉스 R² 0.945) 금요일 KRX 마감 이후 축적된 무기한 선물 가격움직임이 월요일 시초가 갭의 방향과 폭 추정에 유효함
- SK하이닉스 무기한 선물 미결제약정은 \$291M로 한국 종목 1위, 하이퍼리퀴드 무기한 선물 전체 2위로 시그널로 활용 가능한 규모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음
- 다만 유동성·조작·규제·괴리의 4대 리스크는 상존하기에 무기한 선물은 보조 정보 소스로 활용하며 단독 의사결정 기준으로서의 사용은 지양

시간대별 가격발견 도구의 변화



4대 리스크 유동성·조작·규제·괴리 | 무기한 선물은 '거래 대상'이 아닌 보조 정보 소스 — 단독 의사결정 기준 사용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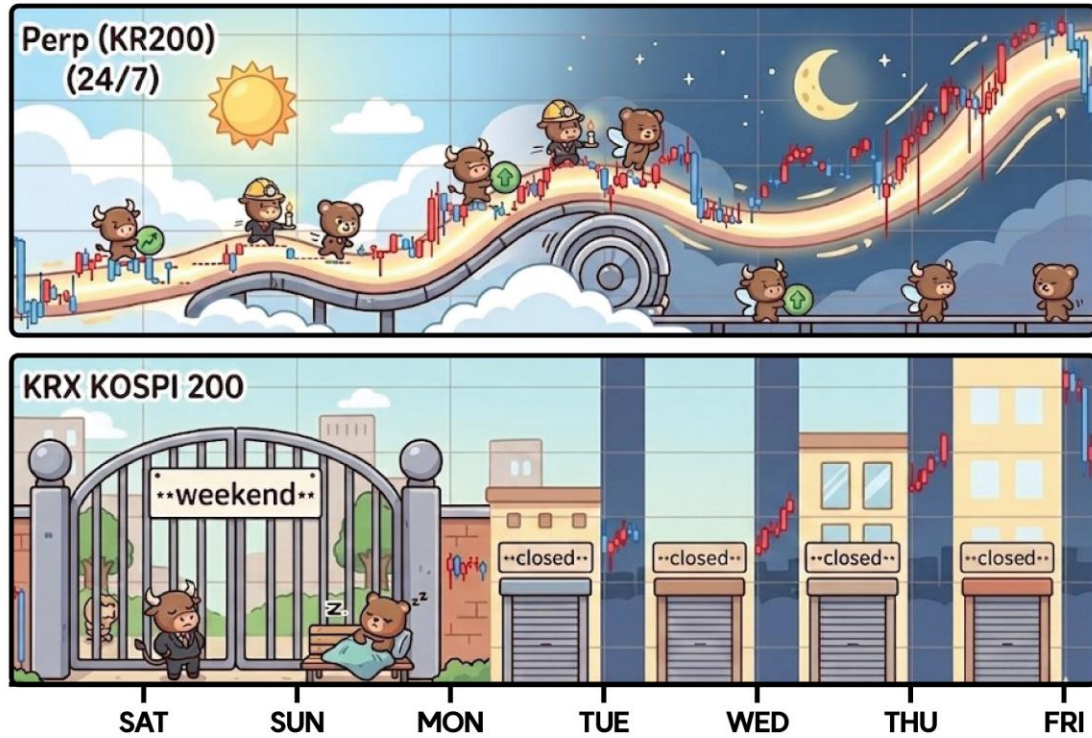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1) 매 영업일 개장 전 08:00(NXT 프리마켓 개시 전): 무기한 선물 야간 가격 변동(전일 15:30 대비), 펀딩레이트 급변 여부(평시 밴드 $\pm 0.02\%/h$ 이탈), 야간선물 증가·베이스스, SK하이닉스 ADR 괴리율 순으로 점검
- 2) 월요일·연휴 익일은 극단 갭 빈도가 높은 구간 — 주말·연휴 무기한 선물 누적 변동(직전 KRX 마감 대비)과 원유·S&P500 무기한 선물 크로스체크로 이벤트 반영 여부 확인 후, 시초가 갭 시나리오(방향·폭)를 수립해 08:00 프리마켓에 대응
- 3) 이벤트 발생 시 수시 점검: 펀딩레이트 극단치는 롱/숏 쏠림의 심리 시그널로 해석, 미결제약정, 거래량 급변 시에는 시그널 신뢰도를 재조정, 저유동성 종목(현대차·코스피200 등)은 방향성 참고로만 한정
- 공통 원칙: 무기한 선물 시그널 단독 판단 지양 — 야간선물·ADR과 교차 확인하고, 미결제약정 규모에 따라 신뢰도 차등 적용(SK하이닉스 > 삼성전자 >> 현대차)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매 영업일 · 개장 전 08:00 <small>NXT 프리마켓 개시 전</small>	월요일 · 연휴 익일 <small>극단 갭 빈도 상승 구간</small>	이벤트 발생 시 · 수시 <small>신뢰도 재조정</small>
<input type="checkbox"/> perp 야간 drift 확인 <small>SKHX·SMSN, 전일 15:30 대비 Δ (레벨 아닌 변동폭)</small>	<input type="checkbox"/> 주말·연휴 perp 누적 변동 <small>직전 KRX 마감(금 15:30) 대비</small>	<input type="checkbox"/> 펀딩레이트 극단치 <small>롱/숏 쏠림 → 심리 시그널로 해석</small>
<input type="checkbox"/> 펀딩레이트 급변 여부 <small>평시 밴드 $\pm 0.02\%/h$ 이탈 시 이벤트 시그널</small>	<input type="checkbox"/> 원유 · S&P500 perp 크로스체크 <small>주말 매크로 이벤트 반영 여부 확인</small>	<input type="checkbox"/> 이 · 거래량 급변 <small>유동성 변화 시 시그널 신뢰도 재조정</small>
<input type="checkbox"/> 야간선물 증가 · 베이스스 <small>perp 시그널과 방향 교차 확인</small>	<input type="checkbox"/> 시초가 갭 시나리오 수립 <small>방향·폭 추정 → 08:00 프리마켓 대응</small>	<input type="checkbox"/> 저유동성 종목 주의 <small>현대차·KR200 등은 방향성 참고로 한정</small>
<input type="checkbox"/> SKHY ADR 괴리율 (상장 후) <small>본주 이윤가 대비 프리미엄 추적</small>		

공통 원칙 perp 시그널은 단독 판단 지양 — 야간선물·ADR과 교차 확인, 이 규모별 신뢰도 차등 (SK하이닉스 > 삼성전자 >> 현대차)



Part 4.

Appendix

Hyperliquid 거래량 상위 무기한 선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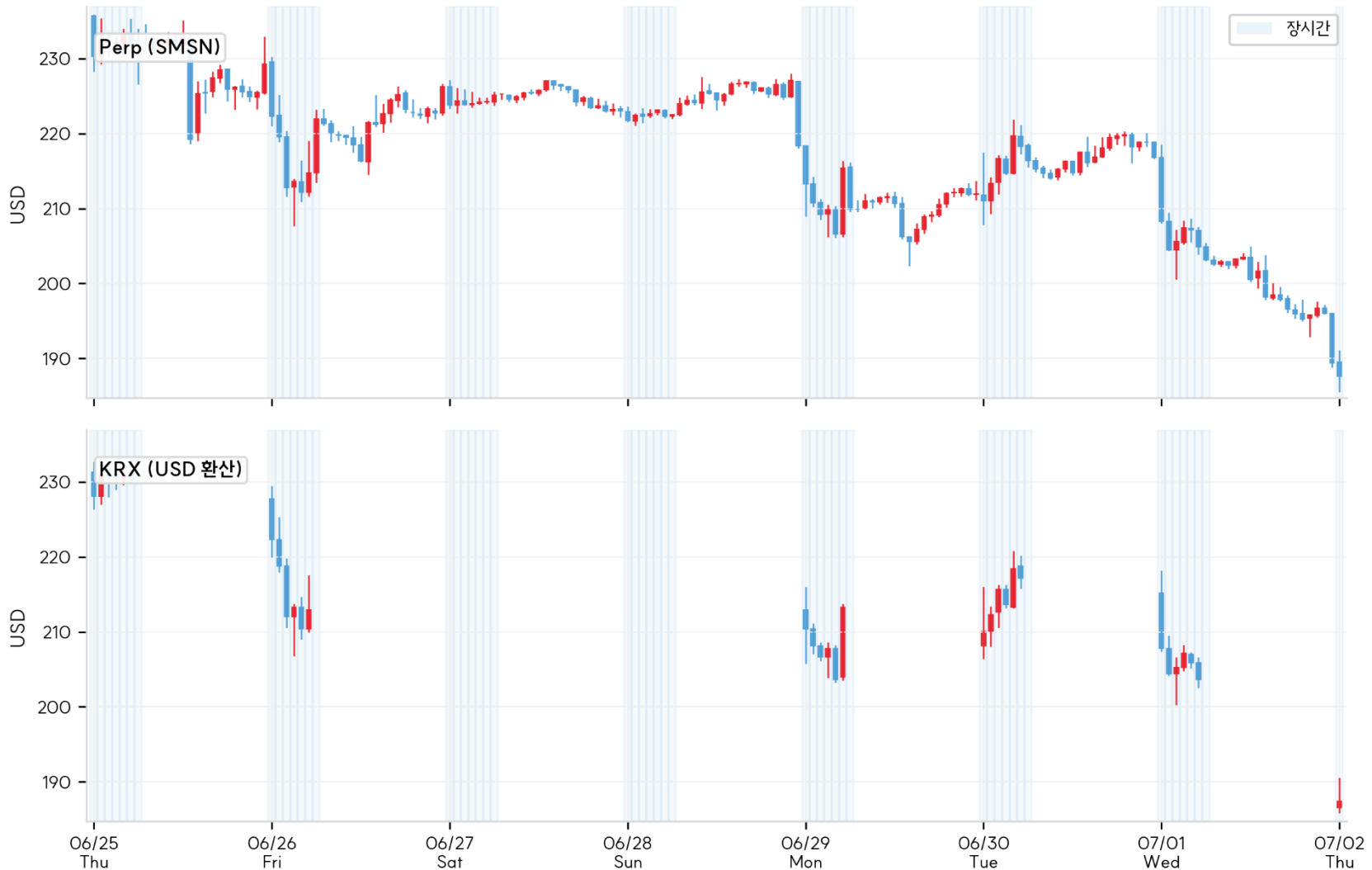
자산군	티커	마켓 심볼	이름	빌더	최대 레버리지	가격(달러)	24시간 거래대금 (달러)	미결제약정 (달러)
Stock	SKHX	xyz:SKHX	SK Hynix	xyz	10x	\$1,511.80	\$529,986,718	\$292,207,156
Stock	MU	xyz:MU	Micron	xyz	10x	\$1,023.00	\$465,377,647	\$216,196,088
Index	SP500	xyz:SP500	S&P 500	xyz	50x	\$7,482.50	\$393,562,567	\$450,370,493
Index	XYZ100	xyz:XYZ100	XYZ 100 Index	xyz	30x	\$29,842.00	\$350,647,113	\$221,271,918
Stock	SPCX	xyz:SPCX	SpaceX	xyz	20x	\$157.70	\$336,673,723	\$177,177,067
Stock	SNDK	xyz:SNDK	SanDisk	xyz	10x	\$2,009.60	\$223,495,167	\$64,619,608
Index	DRAM	xyz:DRAM	DRAM Memory Stocks ETF	xyz	20x	\$64.32	\$151,957,399	\$73,128,105
Commodity	SILVER	xyz:SILVER	Silver	xyz	25x	\$59.49	\$131,807,687	\$79,013,828
Commodity	CL	xyz:CL	Crude Oil (WTI)	xyz	20x	\$67.91	\$105,940,487	\$142,751,732
Stock	META	xyz:META	Meta	xyz	20x	\$612.43	\$71,729,319	\$25,577,035
Commodity	GOLD	xyz:GOLD	Gold	xyz	25x	\$4,053.90	\$66,239,053	\$117,945,402
Stock	NBIS	xyz:NBIS	Nebius	xyz	10x	\$233.19	\$62,890,037	\$60,380,908
Commodity	BRENT OIL	xyz:BRENT OIL	Brent Crude Oil	xyz	20x	\$71.02	\$56,388,473	\$132,640,562
Stock	INTC	xyz:INTC	Intel	xyz	10x	\$127.51	\$54,150,872	\$40,217,570
Stock	SMSN	xyz:SMSN	Samsung Electronics	xyz	10x	\$188.69	\$48,282,271	\$23,920,818
Stock	MSTR	xyz:MSTR	MicroStrategy	xyz	10x	\$93.93	\$47,063,550	\$24,506,304
Stock	CRCL	xyz:CRCL	Circle	xyz	10x	\$62.28	\$45,983,030	\$47,133,552
Stock	NVDA	xyz:NVDA	NVIDIA	xyz	20x	\$197.83	\$42,782,553	\$152,789,474
Stock	AMD	xyz:AMD	AMD	xyz	10x	\$548.29	\$32,680,144	\$11,651,668
Index	EWY	xyz:EWY	iShares MSCI South Korea	xyz	20x	\$183.72	\$32,654,035	\$10,431,969
Stock	TSLA	xyz:TSLA	Tesla	xyz	20x	\$422.24	\$29,141,878	\$28,518,212
Stock	MSFT	xyz:MSFT	Microsoft	xyz	20x	\$385.76	\$27,467,918	\$75,939,791
Stock	MRVL	xyz:MRVL	Marvell	xyz	10x	\$271.06	\$20,467,260	\$52,522,049
Stock	AAPL	xyz:AAPL	Apple	xyz	20x	\$295.78	\$17,282,858	\$14,434,449

Hyperliquid 거래량 상위 무기한 선물 (2)

자산군	티커	마켓 심볼	이름	빌더	최대 레버리지	가격(달러)	24시간 거래대금(달러)	미결제약정(달러)
Stock	CIFR	xyz:CIFR	Cipher Mining	xyz	10x	\$217.07	\$16,956,927	\$32,812,453
Stock	AMZN	xyz:AMZN	Amazon	xyz	20x	\$242.80	\$14,901,239	\$20,080,678
Stock	GOOGL	xyz:GOOGL	Alphabet (Google)	xyz	20x	\$360.39	\$14,868,155	\$58,697,723
Stock	HOOD	xyz:HOOD	Robinhood	xyz	10x	\$108.12	\$13,998,016	\$16,340,149
Stock	CRWV	xyz:CRWV	CoreWeave	xyz	10x	\$86.98	\$13,929,941	\$5,550,547
Stock	BB	xyz:BB	BlackBerry	xyz	10x	\$12.71	\$12,513,912	\$28,885,410
Stock	WDC	xyz:WDC	Western Digital	xyz	10x	\$594.50	\$9,052,998	\$5,356,854
Stock	PLTR	xyz:PLTR	Palantir	xyz	10x	\$125.20	\$7,103,334	\$6,566,232
Stock	COIN	xyz:COIN	Coinbase	xyz	10x	\$159.16	\$6,516,271	\$5,131,618
Stock	ORCL	xyz:ORCL	Oracle	xyz	10x	\$143.62	\$5,774,499	\$7,865,364
Stock	QNT	xyz:QNT	Quanta Computer	xyz	10x	\$77.98	\$5,680,232	\$2,067,577
Stock	TSM	xyz:TSM	TSMC	xyz	10x	\$449.50	\$5,655,604	\$8,098,984
Stock	ARM	xyz:ARM	Arm Holdings	xyz	10x	\$335.95	\$5,475,484	\$4,052,995
Stock	PONY	xyz:PONY	Pony AI	xyz	10x	\$8.08	\$5,363,276	\$5,448,939
Stock	BE	xyz:BE	Bloom Energy	xyz	10x	\$292.38	\$5,286,241	\$2,294,335
Stock	HIMS	xyz:HIMS	Hims & Hers	xyz	10x	\$37.23	\$4,363,487	\$4,748,677
Stock	BABA	xyz:BABA	Alibaba	xyz	10x	\$98.11	\$3,817,501	\$10,519,636
Stock	LITE	xyz:LITE	Lumentum	xyz	10x	\$798.48	\$3,801,389	\$4,898,065
FX	JPY	xyz:JPY	USD/JPY	xyz	50x	\$162.50	\$3,703,039	\$16,956,391
Stock	RKLB	xyz:RKLB	Rocket Lab	xyz	10x	\$100.39	\$3,700,374	\$6,693,086
Stock	AVGO	xyz:AVGO	Broadcom	xyz	10x	\$370.18	\$3,334,955	\$2,845,959
Commodity	COPPER	xyz:COPPER	Copper	xyz	20x	\$6.16	\$3,213,695	\$13,856,296
Stock	KIOXIA	xyz:KIOXIA	Kioxia	xyz	10x	\$463.49	\$3,051,636	\$4,598,983
Index	SMH	xyz:SMH	Semiconductor ETF (SMH)	xyz	20x	\$623.42	\$3,046,748	\$3,081,662
Commodity	NATGAS	xyz:NATGAS	Natural Gas	xyz	10x	\$3.20	\$2,836,315	\$7,633,228

삼성전자 현물 vs 무기한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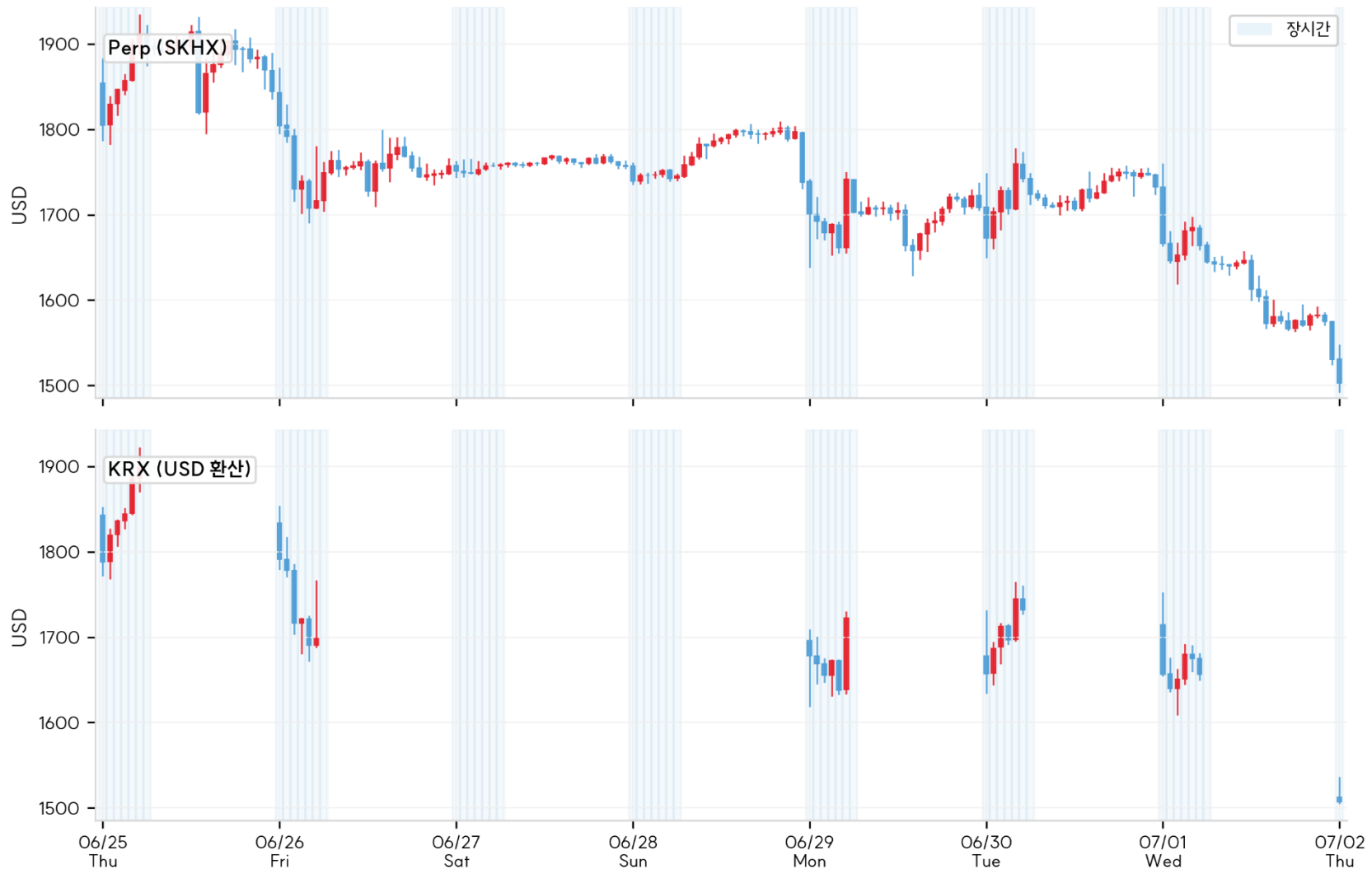
삼성전자: Perp vs KRX - 1h (동일 타임라인, USD)



자료: Hyperliquid, SK증권

SK하이닉스 현물 vs 무기한 선물

SK하이닉스: Perp vs KRX - 1h (동일 타임라인,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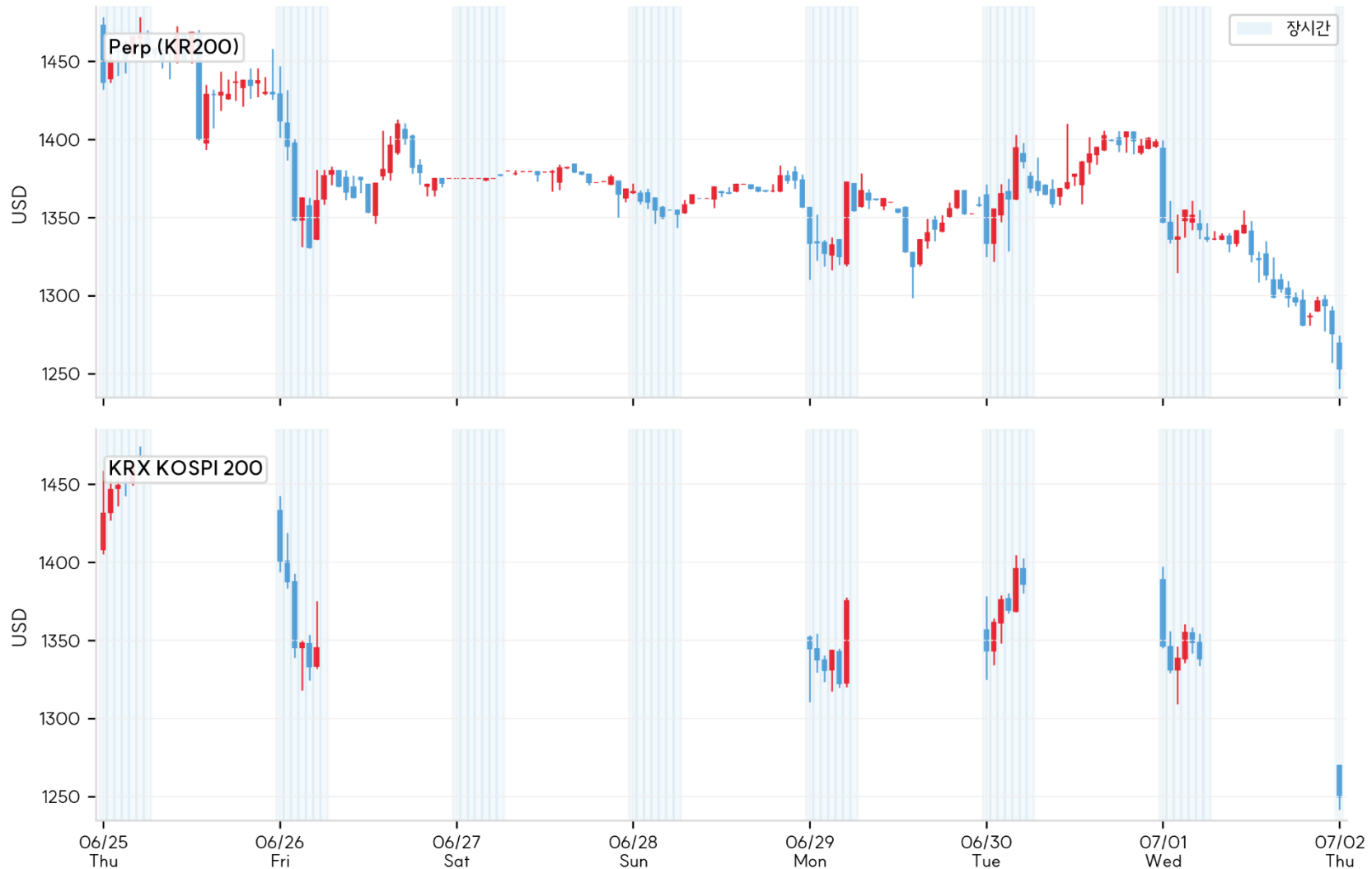
현대차 현물 vs 무기한 선물

현대차: Perp vs KRX - 1h (동일 타임라인,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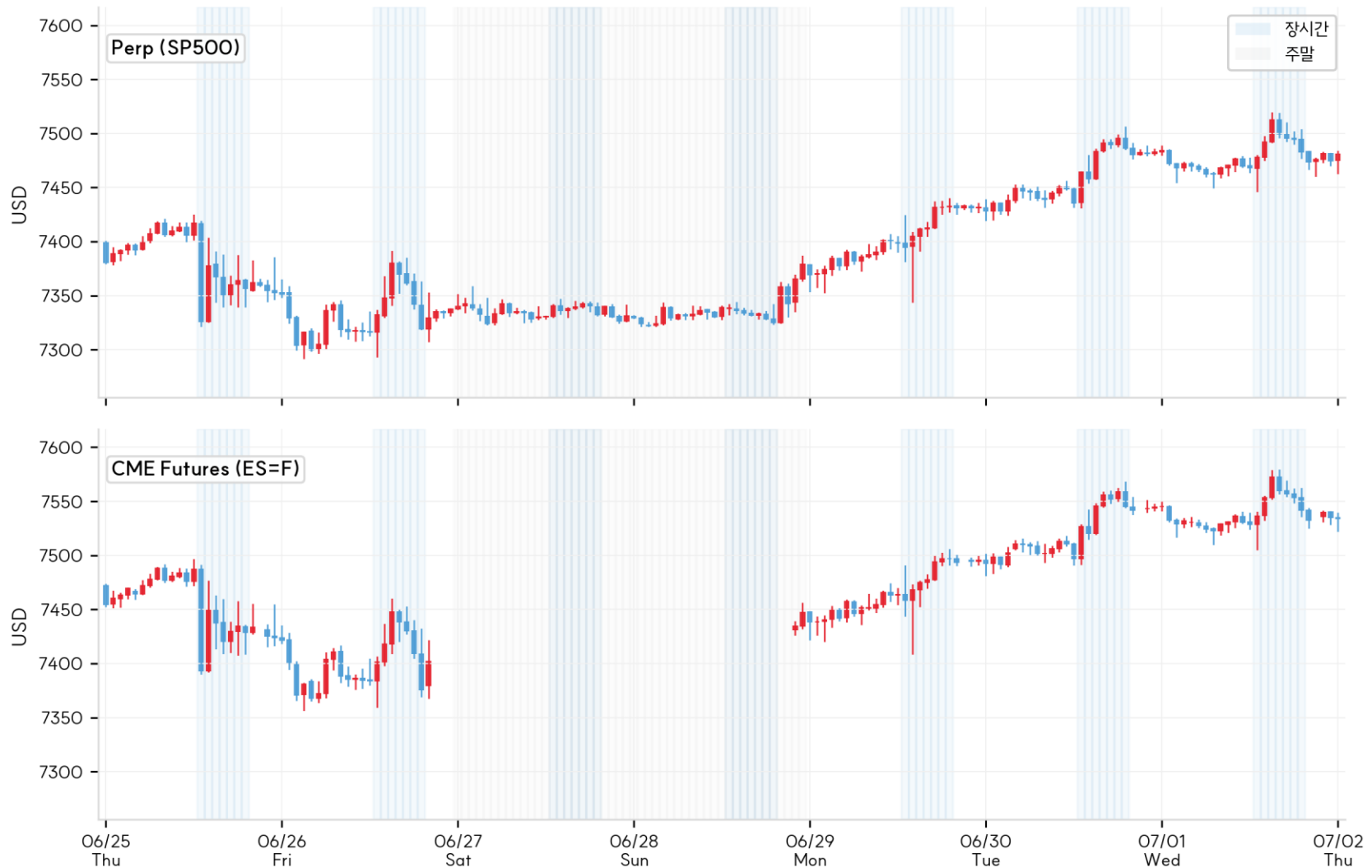
코스피200 지수 현물 vs 무기한 선물

KOSPI 200: Perp vs KRX - 1h (동일 타임라인)



S&P500 지수 선물 vs 무기한 선물

S&P 500: Perp vs ES=F - 1h (동일 타임라인)



WTI유 선물 vs 무기한 선물

WTI 원유: Perp vs CME Futures - 1h (동일 타임라인, USD/bbl)

